서울大同窓會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0년 1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62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金 在 淳/편집인 鄭 宗 澤/편집주간 李 世 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새千年 새아침에 飛翔을 꿈꾸자

牛玄 宋榮邦 作「雲霧속에 昇天하는 龍」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榮國, 孫一根,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東和, 李炯均, 南仲九, 金鎭銅, 宋鎭赫, 李年憲, 洪性萬, 丘月煥, 李成俊, 安炳璨, 李元馥, 金仁圭, 朴時龍, 朴聖姬 편집기자 安輿燮, 金有信,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신년인사

「To rule is to serve!」 몸소 실천하는 모습 보여주길

서울대총동창회 金在淳회장

庚辰年 2000년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20萬 서울大人 여러분에게 삼가 인사 올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神의 恩寵이 여러분 가정마다 充滿하여 새로운 希望과 幸運이 같이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어느새 제 나이도 70 중턱에 접어들어 80을 向해 달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하루하루 햇빛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고 親知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그렇게 情답고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거꾸로 간다고 하는데 아닌게 아니라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은 젊어지다 못해 점점 더 어린애로 돌아가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마도 自然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Bible에 있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어린애 같지 않고서는 天國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天國에 들어갈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는 기간이 人間의 老後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마음이 이러다 보니 정말 어린애처럼 우리의 未來에 대해서 이것저것 空想도 더욱 많아지고 걱정도 더 많아집니다. 어린애와 늙은이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린이들이 自己 自身의 將來에 대해서 空想도 하고 꿈도 많은 데 비해서 늙은이는 나라의 未來, 겨레의 未來, 좀 더 크게는 온 地球村의 未來 등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요.

敬愛하는 同門 여러분!

지난 몇 해 동안 저는 총동창회장의 資格으로 母校의 卒業式에 參席하여 그때마다 아름답게 익은 果樹園에서 느낄 수 있는 싱싱한 感動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昨今에는 착잡한 感懷가 교차하는 가운데 진정어린 反省과 省察 -- 그것을 기초로 한 참다운 elite란 무엇인가, 진정한 elite가 되기 위해서는 最高의 德目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半世紀 동안 우리 겨레가 新生 獨立國家를 일으켜 세워 떳떳한 나라 살림을 꾸려 오는 데까지 우리 서울大人들은 거의 모든 分野의 指導的 位置에서 活躍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를 이른바 IMF 관리체제로 몰고 간 責任으로부터 우리 서울大人들이 自由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告白합니다.

우리 나라의 오늘의 모습이 잘되었든 못되었든 이렇게 된 果實과 責任의 많은 부분을 自負 自認합니다.

서울大人 여러분!

우리는 아직 立身揚名이라고 하는 傳來의 價値觀을 淸算하지 못한 채 elite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학문하는 理由가 벼슬하여 財産을 모으고 自身의 名譽를 追求하기 위한 手段으로 여겨지던 傳統的 價値觀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民族 共同體의 指導勢力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支配하기 위해서는 奉仕해야 한다.

支配하는 것은 奉仕하는 것이다. 「To rule is to serve!」 이 한 마디를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campus를 떠나는 後輩 同門들에게 저의 가슴을 치면서 呼訴하곤 했습니다.

서울大人답게, 自己가 있는 그곳에서 自己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母校의 發展, 祖國의 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設計를 하십시다.

그리하여 몸소 實踐하는 道德的 責任을 自覺합시다.

서울大人이 가는 길, 가야 할 길은 선비의 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지럽고 각박하더라도 무엇에든 현혹 당하지 말고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堂堂하게 人生 길을 걸어갑시다.

庚辰年 새해, 同門 여러분의 健鬪를 合掌 祈禱합니다.

「World Class Research University」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대학교 李基俊총장

2000년, 새 밀레니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항상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문 여러분께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받으며 서울대학교 제22대 총장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 최고의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새 천년을 맞고 보니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새 천년은 대학사회에도 근본적인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마다 대학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기고,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클리대학이나 스탠포드대학이 미국 산업의 첨단기지인 실리콘벨리에 고급인재를 양성 공급하여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이제 대학의 지적 수준은 바로 한 나라 국력의 표상이며, 대학이 국가 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은 보다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제경쟁사회에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새 천년의 대학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거나 지식의 창고 역할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은 지식 생산과 문화가치, 그리고 기술 개발과 정보 취득의 첨단기지이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국가 발전의 거점대학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식 창출의 산실로서, 통일한국 고등교육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실력을 지속적으로 쌓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가 추진해야 할 발전 방향을 「World Class Research University」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레니엄 시대와 글로벌 시대에 맞는 가치관, 인간관 및 세계관을 지닌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혁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인류 복지에 기여하고 국제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배출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지향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과 연구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교수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캠퍼스의 디지털화와 서울대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 쓸 것입니다.

새 밀레니엄의 원년은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다시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수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동문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 동문들은 우리 나라 사회 발전 및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더욱 치열해질 국제경쟁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모교와 동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야심찬 출발점에서 동문 여러분의 모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100년, 새 천년을 맞이하여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동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악춘추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는 새 천년으로 들어서는 첫 해이며 21세기를 맞이하는 첫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올해를 각별히 송축한다. 천년이라는 시공에 제각기의 꿈을 그려보기도 하고 21세기의 희망찬 장밋빛 세상을 점쳐보기도 한다.

인간은 이제 앞으로의 천년 또는 백년의 세상을 내다보려는 예지를 갖게 되었다. 세상은 넓어져서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했고 이제는 우주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간의 생활영역은 이제 광활한 우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우주여행의 꿈이 실현될 날도 멀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대 변동기에 살고 있다. 편협하고 고루한 생각을 갖고서는 시대의 대세를 선도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천리의 길도 첫 발이 중요하다고, 먼 길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선 올해부터 잘 넘겨야 한다. 옛날부터 용띠 해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많다고 해서 이 해를 환영하였다. 용은 봄이면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가을이면 깊은 못으로 잠긴다고 한다. 올 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많은 용이 배출될 것이다. 그동안의 정치불신을 씻어낼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교인 서울대학교로서도 올해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갖는다. 그동안에 있었던 항간의 시비를 말끔히 바로잡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학으로 변신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더구나 새 시대는 새로운 지식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좁은 우리 나라의 명문 대학이라는 기왕의 틀을 벗어나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 앞날의 이상보다는 새해의 일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실천력이 중요하다.

그동안 모교가 대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길은 아직도 멀다. 또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의 변신도 아직은 미진하다. 새해에 가일층의 발전을 기원한다.

〈榮〉

느티나무광장

경향신문 洪性萬사장

새 천년의 유권자

送舊迎新. 낡은 것을 보내는 데는 갖가지 회한과 아쉬움이, 새 것을 맞는데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게 마련이다. 하물며 세기와 밀레니엄이 바뀌는데 말해 무엇하랴. 지금 세계는 새 천년 맞이로 떠들석하다.

우리 나라도 뒤질세라 새천년위원회가 많은 행사를 주관하고 각 단체마다 나름대로의 축제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딴 판이다. 오랜 기간 끌어온 옷로비와 문건파동에 노사간의 대치상황, 여야간의 끊임없는 政爭은 그나마 남아 있던 기대마저 삼켜버렸다.

우리와 같은 정치 제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국가 발전을 선도해야 마땅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앞서기는 커녕 타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나 훼방꾼 노릇만 해오고 있다. 게다가 온갖 낡은 수법과 관행, 신물이 날만한 인물군이 판을 치는 선거는 왜 이리 자주 돌아오는가. 임기 5년의 대통령 선거에 4년마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되풀이되니 선거는 연례행사처럼 돼 있다. 더욱이 새 천년을 맞은 뒤 가장 먼저 치를 국가대사가 16대 총선이다. 이대로라면 이번 총선은 새 천년의 벽두부터 새 기분을 잡쳐 놓을 게 분명하다.

벌써 정치권은 선거철이면 으레 등장하는 신당 출현에다 합당론과 연합론 등 이합집산이 한창이고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 있다. 각종 개혁 주장이 물러선 자리엔 선심정책이 난무하고 말로는 정치 개혁을 관철시키느라 각 당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이러니 선거가 과열 혼탁해지지 않을 리 만무하다.

정치인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백년하청임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앞날엔 아무런 희망이 없단 말인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기대는 유권자들의 각성이다. 이번에야말로 票를 통해 정치권에 따끔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유권자 혁명」에 관한 얘기가 있어 왔으나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은 각자의 선택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좀 막연하긴 하지만 「새 천년에 걸맞는 인물」이란 기준을 세워보면 어떨까.

이렇게 작은 관심들도 한데 모아지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디지털 경제시대 앞장서자

우리 경제의 엔진이 바뀌고 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공업이 담당했던 버팀목을 이제는 정보통신 산업이 해내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컴퓨터 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산업이 이 범주에 속한다.

어느새 우리는 세계 최대의 이동전화 생산기지가 되었는가 하면 반도체는 물론 LCD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무역흑자 중 정보통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국민경제를 이끌어 가는 경제를 흔히 「디지털 경제」라고 한다.

새 천년은 바야흐로 디지털 경제시대이다. 향후 2~3년 이내에 일어날 일만 생각해도 디지털 경제의 위력은 가공할만하다. 2001년부터 디지털 방송이 본격화되면 우리 나라의 TV 산업은 최대의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 2000 서비스가 2001년부터 개시되고 2백개 이상의 채널을 가진 위성방송이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산업은 물론 관련부품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천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초고속망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틀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미국 상무성은 「떠오르는 디지털 경제(The Emerging Digital Economy)」라는 보고서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먼저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보통신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95년에서 98년까지 정보통신 산업은 미국 실질 경제성장에 연평균 35%를 기여했고, 기술 혁신으로 정보통신 산업의 물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전체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또한 2006년까지 정보통신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고용이 미국 전체 고용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정보통신 기술활용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국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산업 전체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5%인데 비해 정보통신 산업은 26.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보통신 산업이 실질 경제성장에 끼친 기여도는 매년 증가하여 3분의 1 이상을 기록했다. 수출에서도 정보통신 산업의 비중은 93년 17.5%에서 98년에는 23.1%로 증가하는 등 정보통신 산업은 이제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비투자에서 정보통신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미국의 30% 수준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으며 전자상거래의 활용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수확 체증(increasing returns)의 원칙이 존재한다. 먼저 앞서 나가면 계속 앞서고 한번 뒤쳐지면 계속 뒤쳐지는 「貧益貧 富益富」 현상을 말한다. 지금 세계 모든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번영을 선점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 경기에서 한번 뒤쳐지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경제주체 중 아직도 정보통신 분야를 거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극히 불행한 일이다. 새 천년에는 정보통신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金 孝 錫
(72년 商大卒)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장

謹賀新年

庚辰年 새해에도 倍前의 聲援과 鞭撻을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고문 閔復基 金俊成 金鍾泌 金泳三
명예회장 崔主鎬 李基俊
회장 金在淳
상임부회장 鄭宗澤
부회장 河永基 金相廈 田溶星 白樂皖 具平會 姜信浩 金性洙 李聖秀 李達雨 朴晟容

부회장 徐廷和 鄭喜卿 申榮均 宋斗灝 韓斗鎭 金貞植 閔丙畯 鄭仁奎 趙南煜 張翼龍 金柱津 李丙俊 李金器 李埈鎔 洪斗杓 李相禹 尹世榮 孫京植 卞圭七 吳仁錫 姜敏求

부회장 洪性大 玄明官 高斗模 朴炳潤 孫吉丞 韓光玉 劉常夫 李廷武 崔秉烈 卞柱仙 尹永錫 朴容晟 李祥羲 鄭大哲 金基炳 鄭海泳 玄在賢 洪錫炫 鄭夢準 李珉和 감사 李基雄

감사 方孝宣
사무총장 李世震

재단법인 관악회

〈동창회 임원 겸임 동문은 중복을 피함〉

이사 金道昶 白文基 李乃均 李晟遠 許浚 尹美子 金一燮 南相午 李弘中 朱鎭旰 崔鉉烈 金在哲
감사 朴英俊 朴柱鐸

지부순례

농수산물
유통공사 지부

국내 농업 보호·발전에 견인차 역할
67년 창립, 단 6명이나 결속력 대단

글 : 金珖鎭(96년 農生大卒)총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1967년 12월 설립된 32년 역사의 정부 투자기관이다. 설립 당시의 社名은 「농어촌개발공사」였으나, 1987년 경제 발전에 따른 농수산업의 여건 변화와 농수산물 유통부문 육성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社名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바꾸고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수출진흥, 유통조성,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주력해 오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낙농업, 직거래사업, 화훼공판장 등 국내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불모지였던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통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 세간에서는 공사가 수입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내 농업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공사의 사업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이곳에서 행하고 있는 국영무역사업은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 자유화로,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일정 품목에 대해 국내 시장접근물량을 설정, 의무적으로 수입하되 창구를 공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출국의 개방압력을 완화하고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또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에 귀속되어 농업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업분야 곳곳에서 비록 소수지만 모교 동문들이 포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지부가 처음 발족된 것은 1967년으로 공사 설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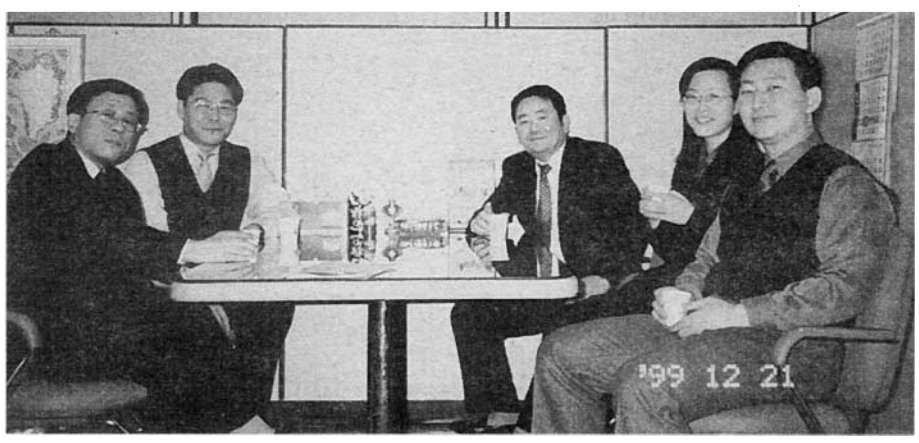
현재 이곳에 재직중인 동문은 지부회장인 金平謙(73년 農大卒)동문을 비롯해 金熙國(76년 農大卒), 鄭鎰晩(76년 法大卒), 朴感春(79년 農大卒)동문 등이며, 이제 사회 초년생의 때를 막 벗으려 고 하는 柳喜淑(94년 農生大卒)동문과 필자 등 모두 6명이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유통조성, 국영무역 등 공사의 주요사업 각 분야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능력을 누구보다 인정받고 있다.

金 平 謙 회장

회원구성을 보면 80년대 졸업생이 없다. 산업화를 넘어선 정보화 시대를 맞아 어쩐지 정보화와는 동떨어진 듯한, 농업분야와 연관된 회사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동문후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를 비롯한 막내들이 들어온 것이 96년도, 새로운 후배를 맞아 이제 막 활성화되던 지부가 온 나라를 뒤덮었던 IMF 한파의 영향으로 많은 선배들을 떠나 보내면서 주춤하기도 했었다. 특히 지부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金美姬(86년 農大卒)동문이 지병으로 우리 곁을 떠나가면서 지부는 더더욱 침체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법, 공사가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긴 터널을 거치면서 21세기를 맞아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것처럼 농수산물유통공사지부도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소수이지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고 모교와의 연계를 강화해 한국 농업발전을 위해 동참하고자 하는 후배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동문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좌로부터 金熙國, 朴感春, 鄭鎰晩, 柳喜淑동문과 필자

건강을 지킵시다

치아 탈락증과 植齒치료

李在允(82년 齒大卒)덕영치과 원장

인간의 평균 수명이 25세를 넘은 것은 불과 금세기에 와서였다. 질병, 기근, 자연재해 등으로 인간은 자신의 명을 다 못살고 죽어갔다. 인생 육십이면 많이 살았다고 회갑 잔치를 했고, 홍역을 치르지 않으면 호적에도 올리지 않는 관습도 생겼다.

그러나 지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0세를 넘어섰고, 65세가 넘으면 평균기대 수명도 80세를 넘어선다. 21세기에는 각종 장기이식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으리라는 추측이 나왔다.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인간에게 치아를 두 번(유치와 영구치)이나 줬지만 인간의 평균 수명 증가로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치아 탈락 환자가 많아졌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것이다.

진담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음식물의 섭취나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다.

인공 치아 이식(일명 植齒 Implant)은 인간의 인공 장기 이식술 중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인공 장기 이식 중 가장 발전된 인공 심장 이식의 경우도 그 수명이 길지 않으며, 기능적으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공 치아 이식의 경우 90%이상 성공률을 가지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한다. 인간은 하루에 1천 4백번이나 힘차게 음식을 씹는다. 그런데도 치아의 수명이 10년 혹은 20년, 30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마치 뱀이 음식물을 먹고 독을 만드는 것 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씹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이를 만족시켜 주려는 치과의사의 열정이 이루어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식치를 「제3의 치아」라고도 부른다. 그 치료 시술도 아주 간단하여 치아 세 개를 심는데 한시간이면 충분하다. 심고 난 후 보통 3~6개월 사이에 보철을 하게 된다.

뼈의 양이 극히 적은 사람에게 시술할 때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부작용이 거의 없다. 치아를 빼면 치아 주위의 질병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통 심은 치아가 탈락되면 그 이상의 부작용도 없어진다.

추억의 窓

잊지못할 배나무골의 한가로움
첫 해외여행 얘기에 넋나가기도

李慶雲(61년 工大卒)한국자원공학회장

인생의 긴 여정 중에서 공과대학에서의 시절은 한 순간의 그림으로 기억된다.

공과대학이 자리한 신공덕리에서부터 중랑교까지 이어진 신작로(당시 맛있기로 유명한 배나무 과수원이 늘어서 있었음)를, 만원버스가 타기 싫을 때엔 친우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장장 30리 길을 걸어다녔던 기억이 난다. 이렇듯 배나무골의 한가로움은 대학생활 중 유일하게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다.

기숙사가 지어지기 바로 전이라서 한강변을 따라 달리는 곳간차를 개조한 듯한 기차통학으로, 아니면 서울 시내를 관통하여 한 시간 이상 만원버스에 시달려야 올 수 있었던 서울 공대.

멀리 도봉산이 둘러쳐져 있으며, 불암산의 산자락에 자리한 공대는 그렇기에 4·19 혹은 5·16의 激浪에도 먼발치에 있었던가.

자원공학과(당시 광산학과)가 있었던 공대 5호관은 본관 건물에서 뚝 떨어져 있는 독립된 3층 건물이었다. 그 앞에 넓은 마당은 측량실습에 활용되었고, 공대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사용할 폭죽을 만들어 쏘아보기도 하던 듬성이 풀밭이었다. 그곳은 국내 최초의 실험용 원자로가 있는 곳으로 통하는 솔밭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곳에서 1955년 체결된 한미협정에 따라 교수들의 재교육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미네소타대학과 그로 인한 교수님들의 첫 해외여행으로 빚어진 숱한 뒷얘기들을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시절을 지금과 비교하면 무척이나 부족한 정보와 선진 기술수준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결핍의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꿈을 만드는 기회의 시기였다.

공대 5호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 한 장. 미네소타대학 유학 후, 국내에 암석역학 학문을 도입한 故 金東基교수님, 내가 유학을 떠났을 때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하루 저녁 머무는 짧은 시간에도 짬을 내어 東京에서 초밥을 사주셨던 田溶元교수님,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징집되어 金東基교수님과 함께 군복무를 같이 하게 된 徐立圭·李東夏학형, 대학원의 梁承珍동문.

이 사진이 스승과 선배와 동료의 사랑, 우정의 모음집으로 회상되는 것은 공대 캠퍼스의 지리적인 여건과 시대적인 영향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61년 자원공학과를 졸업한 동문들의 3분의 1인 10여명이 전공과 연관되거나 전혀 다른 각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활동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또한 대학시절 교수님들의 영향과 넘쳐나던 개척의 욕구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후배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수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꿈을 키우는데 시간을 귀중하게 쓰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며.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李東夏, 金鎭萬, 梁承珍, 徐立圭, 필자, 田溶元, 金東基동문

李順玉·金善鏞여사 명예회원에 추대

회보 편집위, 불우이웃 성금 전달…朴明潤동문 특지장학금 쾌척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12월 8일 정오 서울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李順玉·金善鏞여사 명예회원 추대식」 및 동창회보 송년편집회의를 개최했다.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본회 崔主鎬명예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閔丙畯·李丙俊·孫京植·李相禹·朴炳潤부회장, 方孝宣감사를 비롯해 鄭晳圭 前공대동창회장, 朴明子간호대동창회 부회장, 禹德昶경대원동창회장, 李濟薰신대원동창회장, 鄭八道AIP동창회장, 朴英俊 관악회 감사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 李基俊총장, 宋丙洛부총장, 南相午발전기금 상임이사, 朴容昡병원장, 成相哲병원 부원장, 胡文赫대학신문 주간, 姜承求홍보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동창회보 논설위원으로는 한국일보 孫一根상임고문, 탐라대 金哲洙총장, 서울언론재단 李東和감사, 동아일보 南仲九통일연구소장, 한국PR협회 李炯均고문, 李年憲 前MBC제작본부장, 경원대 安炳璨교수, KBS 金仁圭뉴미디어센터장, 서울경제신문 朴時龍부국장, 한국경제신문 朴聖姬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동창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李順玉(86세)여사는 평생 삯바느질로 모은 재산 10억원을 아프고 돈없는 사람들을 치료해 달라며 지난 97년 6월 30일 모교 병원에 쾌척했으며, 金善鏞(72세)여사는 잠옷장사와 목욕탕 운영으로 모은 10억원을 지난 99년 8월 24일 불우한 환자 치료 및 질병 연구비로 출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31일 모교 병원측은 두 분 여사를 명예회원으로 추천해왔으며, 본회는 이 내용을 상임이사회에 서면으로 상정하고 상임이사 1백5명중 71명의 찬성 확답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회 회칙 제5조 제3항(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에 의거, 두 분 여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부 행사인 명예회원 추대식에서 본회 金회장이 두 분 여사에게 명예회원 추대패를 전달했으며 모교 李基俊총장이 祝壽선물을 증정했다.

이어 金회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두 분 여사의 숭고한 선행이 모든 동문들에게 살을 여미는 모진 채찍질로 여겨진다』며 『땀과 눈물로 얼룩진 돈을 내주신 것은 억만장자의 千燈에 버금가는 값진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 李基俊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창회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두 분 여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이 분들의 고귀한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널리 알리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교가 세계무대를 향해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큰 기틀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미동창회 李丙俊명예회장은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처럼 서울대인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접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재미동창회에서도 총동창회 및 모교와 협력하여 훌륭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모교 朴容昡병원장은 명예회원 추천 경위와 출연금 운영보고를 통해 『작금의 물질만능시대에 두 분 여사의 근검절약의 정신과 숭고한 인간 사랑의 정신은 우리 시대의 사표로서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여 총동창회에 명예회원으로 추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두 분의 출연금은 의학연구기금으로 사용,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며, 李順玉여사 출연금의 과실금은 호흡기질환 연구비로 계속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두 분 여사의 높은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모교 병원 현관에 기념상을 제작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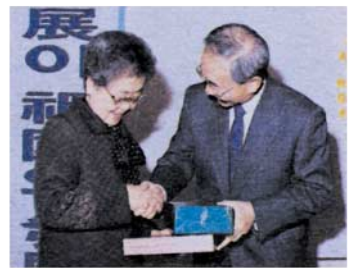
崔主鎬명예회장의 건배제의로 시작된 2부 송년 편집회의 순서에서 朴明潤(76년 保大院卒)전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이 본회에 특지장학금 5천만원을 출연했다.

朴明潤동문은 「회갑때 1억원씩 사회 환원하기」운동을 몸소 실천해, 지난 5년간 하루 용돈으로 5천원만 쓰는 등 근검절약하면서 저축한 1억원을 평화통일복지기금재단, 연세대 교회, 파인트리클럽 장학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국청소년학회 등에 출연한 바 있다.

朴동문은 『우리 사회의 혜택을 받고 성공한 지도층의 기부행위가 미흡하다』며 『매년 약 40만명이 회갑을 맞이하는데 이들 중 정치인, 기업인, 교수, 의사, 변호사, 고위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 1천명이 1억원씩 사회에 환원한다면 매년 1천억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朴동문은 『사후에 유산을 분할하여 기존의 출연한 단체에 기탁할 것이며 시신은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연세대 의대 해부학교실에 기증하기로 서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동창회보 발행인(金在淳), 편집인(鄭宗澤), 편집주간(李世震), 논설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SBS 安國正제작본부장(전무)에게 전달했으며, 신년호부터 동창회보 표지를 좀더 다양한 서체와 디자인으로 제작할 것을 논의했다.

李順玉여사·金在淳회장


金善鏞여사·李基俊총장

朴明潤동문·金在淳회장

鄭상임부회장·安國正SBS전무

재단법인 관악회 78차 이사회
모교와 매칭펀드에 1억 편성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12월 20일 오전 8시 신라호텔 아리아케에서 제7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白文基예술원 회원, 李晟遠청소년도서재단 이사장, 尹美子중문민속촌 대표, 朴英俊 공인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개선을 통해 金在淳이사장과 朴英俊감사를 재선임했다. 또한 이외의 임기만료된 임원 선임은 이사장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200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99년에 마지막으로 종결된 「교수연구저술비」 지급예산 6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투입, 「2002-111 비전 플랜」에 맞추어 재학생 0.85%에 해당하는 2백6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모교측의 요청에 따라 「해외 석좌교수 초청 Maching Fund」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모교 지원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을 의결했다.

〈燮〉

미술작품

宋榮邦 作

「雲霧속에 昇天하는 龍」 45.5×63.7㎝, 먹·수묵담채, 1999.

〈작가 약력〉

△60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60년 제9회 국전 특선
△69~70년 조선일보 현대미술초대전
△72년 인도 TRIENNAL
△78년 TAIPAI 역사박물관 초대
△80년 Asia 현대미술 초대
△82년 Italy 한국 현대미술 초대
△86년 한국화 100년전
△88년 88올림픽 미술초대전
△92년 한국화 표상전
△92~93년 한중미술 교류전
△94년 서울 600주년 기념전
△95년 한중미술가 협회전
△96년 불교미술대전
△96년 서울시 문화상 미술상 수상 및 문화훈장
△98년 대한민국 종교 예술제
△98년 98동경 BESETO 국제교류전
△99년 서울시 미술초대전
△현재 동국대 예술대 학장

용띠 동문 10人의 新年 소망

2000년은 새 천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해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새 천년 첫 해 첫 달인 2000년 1월, 각계 동문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용띠 동문 10명에게 2000년에 하고 싶은 일, 소망 등을 들어보았다.

새 천년 事必歸正의 진리를 되새기며

徐廷祥(28년생·49년 藥大卒·70년 大學院卒)전북일보 회장

돌이켜 보면 지난 20세기에는 숨이 가빴다. 개인적으로도 뒤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을 만큼 투지 있게 살아온 것 같다. 대학 문을 나선 것이 어느새 반세기가 지났고 그렇게 멀게만 보이던 천년 고개를 넘었는데도 시간이 많았다거나 지루했다는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없다.

당시에는 누구나 다 어려웠지만 대학생활은 늘 고달팠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일상이 온건하지 않았다. 교육자, 의약인, 육영인, 경영인으로서 여러 길을 한꺼번에 걸었다. 항상 뜻을 세우고 실천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정 탓도 있겠지만 20세기의 격동이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취가 있었다면 모교의 가르침이 지혜가 됐고 모교의 정신이 나를 올바르게 인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항상 맨손이었고 맨손으로 시작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학창시절의 패기와 신념 그리고 자부심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었다.

우리 대학을 포함한 요즘 대학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10년도 쓰지 못할 값싼 지식이 대학을 횡행하고 한순간의 안락에 도취되는 천박한 의식이 판치는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또 한번의 천년이 와도 변함없이 유용할 삶의 지혜와 그 천년의 뒤에도 여전히 빛을 발할 바른 정신이 관악산 기슭에 깃들여야 할 것이며 龍飛御天歌나 읊조리는 사이비 지성인을 양산해서는 안될 것이다.

용의 해가 밀레니엄으로 바뀌고 Y2K가 용의 신령스러움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용의 권위를 지켜 가는 한가지가 있다. 가령 필자가 평생 동안 곁에 두고 신봉해 온 事必歸正과 같은 진리 말이다.

따뜻한 동문애를 느끼는 한 해가 되길

朴善奎(28년생·49년 醫大卒)의학신문 회장

최근 의료계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편중현상이 여전하여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의 경우 1일 외래환자가 8천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병상수도 2천2백여개로 국내 최대 시설이긴 하지만 1천6백개의 병상에 1일 외래 5천5백명인 서울대병원도 동문들의 協調에 힘입어 이에 버금가는 많은 외래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이 이처럼 많은 외래환자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현대가족들이 이 병원을 계속 이용함에 있어 편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대병원도 모교 동문이나 그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주어진다면 모교의 병원을 이용하는 동문들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朴容昡병원장이 취임한 이래 적어도 외형적인 면에서는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하며 특히 진료 측면에서는 환자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정성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는 자세변화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차별화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선배 또는 동료나 후배로서의 따뜻한 同門愛와 예우를 느낄 수 있다면 모두가 최고 수준의 서울대병원을 외면할 리 없을 것입니다.

한때는 장례식장도 불편하여 서울대병원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3백대를 수용할 수 있게 완비되어 전반적인 병원 환경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새해부터는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를 아껴주는 끈끈한 동문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대 변화시킬 바른 인재는 관악에서

李順炯(52년생·74년 家政大卒·87년 大學院卒)서울대 어린이집 원장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과오를 범해서 추락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이 그들이 관악을 거쳐간 인사임이 밝혀졌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해방 이후 전국의 수재들이 본교에 모여들었고 본교를 거쳐간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에 대거 포진했다. 그러다 보니 부정과 연루된 인사가 자연히 동창일 가능성이 컸다.

불미스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미흡한 데가 없었는가를 생각하곤 한다.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이 세상에 사는 진리 찾는 이 길을」 지향하고 있는 본교의 교육 이념이 과연 그 이상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유능하기는 하지만 도덕적 신념과 철학이 빈곤한 인재가 양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들을 돌아보게 된다.

본교 출신들은 동숭동 혹은 이곳 관악캠퍼스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당시에 그들은 젊었기 때문에 기상은 높고 마음은 순수하고 고결했을 것이다. 또한 본교 출신이라는 자부심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교문을 나서서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불신, 불의, 부정, 혼탁으로 얼룩진 도도한 현실에서 소신대로 깨끗이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흙탕물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부정과 혼탁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신념과 철학을 잃지 않은 채 아름답고 깨끗한 연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본다. 이들 인사 중에 상당수가 본교 출신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엘리트라는 의식과 사명감 그리고 긍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처신이 가능했을 것이다.

본교는 명실 공히 이 나라의 수재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최고 수준의 학교로 지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본교 출신자들은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 일하게 될 것이다. 다만 간절히 바라는 바는 그들 젊은이들이 교문을 나서서 사회 각처에서 일하는 동안 부디 본교 출신다운 굳건한 긍지를 지니고, 유능하고도 도덕적 원칙에 충실한 인재가 되어 새 세기에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기를 소망한다.

국민 성원에 걸맞는 명성을 드높이자

姜奎錫(40년생·62년 師大卒)
영동대 학장

모교를 졸업한 지 38년이 지나는 동안 모교는 크게 발전해 왔으며 민족의 대학으로 국가 사회를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과 민족의 성원에 비교하여 우리 서울대인은 좀 더 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실 공히 우리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의 집합체로서 앞으로 책임과 의무를 한 단계 높혀서 수행하고 완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가, 민족이 서울대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서울대인의 과학, 기술, 인문, 사회,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선진 대열에 우뚝 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의 성원에 걸맞는 명성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열림 세계에서의 우리의 명성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상태에 놓여져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창의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세기에 서울대인이, 개인은 물론이고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사회학자, 의학자, 기술자, 예술가가 되어 달라는 국민의 소리를 느끼고 그 희망을 달성해 주어야 하는 과제가 서울대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새해, 새 천년의 시작에 우리 모두 모교의 명성에 한 획씩 더해 그 노력을 합하여 우리의 명성을 높여가기를 제창합니다. 새해에 동문 여러분들의 큰 발전과 성취를 기원합니다.

「Noblesse Oblige」 우리가 지켜나가자

朴英俊(40년생·66년 商大卒·
68년 經大院卒)공인회계사

벌써 다섯 번째나 맞이하는 용의 해지만 새 세기, 새 천년의 개시 년도를 맞이하여 전방위에 걸쳐 무한한 희망이 어른거립니다. 우선 저의 작은 소망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화목이며 다음으로는 수년간 미완성한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이 완성되고 나를 키워준 사회에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것 등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가 일제의 지배, 6·25전쟁, 한강의 기적 그리고 IMF 등 민족 중흥의 영광과 치욕 등으로 점철되어 왔으나 이러한 고난과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한 저력과 영광된 유산을 기반으로 했기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세계와 새 세기를 향해 힘찬 대장정에 발진하는 시발점에 서 있습니다.

M. 루터가 지적했듯이 희망이란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입니다. 민족 중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지를 다짐하고 용감하게 매진하여 후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서울대 동문들이 우리 나라의 국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서울대 동문을, 또한 우리가 우리를 노블레스(Noblesse)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우리 또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오블리즈(Oblige)를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나라의 국운신장에 새 천년과 새 세기의 첫 해에 畵龍點睛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용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선후배가 모이는 자리에 미래가 있다

金容學(52년생·75년 法大卒)Babb & Reed로펌 변호사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뉴욕 지부 동창회 연말 모임은 이렇게 교가 합창으로 시작했고 16년전 미국에 유학와 이제는 큰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귀국의 꿈이 멀어져 가는 나에게도 여전히 校歌는 감동적이다. 군대동우회, 직장동우회 등 많은 단체모임에서 이렇게 마음 밑바닥까지 뭉클한 적은 없었으니 단지 鄕愁를 느끼고, 과거를 공유하는 모임이기 때문만은 아니리라. 국가 장래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던 날, 선배는 후배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했던 아름다운 시절이 그리웠기에, 같은 학창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많게는 40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 종교·사회·경제적 이해를 불문하고 따뜻한 情이 오가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인간 관계가 대립적이고 메말라가는 소용돌이 속에 샘물과 같은 이러한 자리는 학교에 다니는 후배들에게까지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연말의 일회적 행사가 아닌 영원한 자리를 제공해 줄수 있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아름다운 자리는 곧 사회 발전을 위한 마음의 시작이며 열린 마음은 2000년대 사이버 사회가 던지는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교에 대한 긍지가 클수록 더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 자리에 참여할 것이 아닌가. 모교가 발전할수록, 사회에서 자랑스런 인사로 존경받는 동문들이 더욱 많아질수록 우리의 모교에 대한 긍지는 이에 비례할 것이다. 본국 총동창회에서도 격려하는 바이지만 재미 총동창회는 각 분야에 걸쳐 미국 내 자랑스런 동문들을 적극 발굴하여 그분들의 경험 및 유익한 의견들을 매월 발행하는 회보에 실어 세계 속에서 서울대인의 긍지를 높이고 다른 동문들과의 대화 채널로 이용할 계획을 하니 2000년 용띠 해가 기다려진다.

인터넷 통한 「사이버 천문대」 오픈 예정

李泰炯(64년생·87년 自然大卒·93년 環大院卒)천문우주기획 사장

지난 94년 단돈 5백만원으로 사무실을 얻고 직원 1명과 함께 별 사업을 시작했다. 어느덧 6년이 흐르고 이제 직원은 20명으로 늘었다.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잡지 출판도 1999년에 시작할 수 있었다.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별에 대한 잡지 하나 없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을 수 없다는 별쟁이로서의 자존심이 「별과 우주」라는 천문 대중지를 만들게 해주었다. 비록 적은 발행 부수지만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부끄럼 없는 잡지임을 자부한다.

올해에는 나의 꿈이었던 사이버 천문대를 오픈 할 것이다. 우리의 낮 시간에 밤인 미국에 무인 천문대를 건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교실에서 실시간으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하는 천문대 말이다. 사이버 천문대는 인터넷 방송국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별도 보여 주고 별과 우주에 대한 강연을 간단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내보내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

일반인들이 별을 보며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스타 카페도 올해 말쯤이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년 동안 산학 공동 연구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천체 관측 장비의 개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 조만간 우리의 우수한 관측 장비를 외국에 수출하는 날이 올 것이다. 몇 년을 노력한 결과 영월, 대전, 김해의 세 곳에 시민 천문대가 들어서게 되었다. 비록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지만 세 곳의 시민 천문대를 내가 직접 기획하고 기본 설계를 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만들어진 민간 천문대 운영자의 대부분이 우리 회사 출신이라는 것도 나의 보람이기도 하다.

올해는 용의 해, 나의 별 사업도 이무기의 긴 인고의 시간을 넘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기회로 만들고 싶다. 나를 믿고 따라준 나의 직원들에게도 새로운 밀레니엄의 환희를 느껴보게 해주고 싶다.

국내 화상 통신의 대중화에 헌신할 터

許埈榮(76년생·98년 工大卒)나다기연 산업기능요원

안녕하십니까! 경진년 새해에 용띠 동문 허준영이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을 시작하는 해에, 이렇게 서울대 동창회보를 통해 동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공대 컴퓨터공학과 94학번으로 98년 2월에 졸업했으며, 그해 3월부터 현재까지 화상회의 전문 업체인 나다기연(www.nada.co.kr)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은 요즘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음성과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이 시스템들이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MCU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화상 통신이 널리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화상전화가 널리 보급되어 더 이상 SF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 돌도끼라는 단체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돌도끼는 모교 컴퓨터 연구회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컴퓨터 사전서비스(dic.doldoki.org)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꾸어 왔던 여러 미래의 모습들이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졸업할 당시만 해도, 병역특례를 끝내고 계속 공부를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사회 경험과 사회 변화를 지켜보면서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도 우스울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박사라는 학위를 받는 것이 진정 내가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박사라는 이름자체만을 바란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새 천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라 일에는 최선을 어두운 곳엔 희망을

曺漢旭(64년생·88년 社會大卒)
삼성화재 재무기획팀 과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386세대로서 새 천년을 맞이하는 감회가 더욱 크다. 하루가 멀다하고 시끄러웠던 대학 캠퍼스,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최근 2년 동안의 IMF 상황 등, 그 많은 일들이 과거 속으로 흘러간 것을 생각할 때면 정말 시간은 누구에게도 아량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특히 금융시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나에게 IMF 구제금융 상황은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가장들, 서구 자본주의에 나약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경제현실….

나의 최근 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회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를 수 있었던 것이다.

새 천년을 여는 2000년은 운좋게도 용의 해로서 나에게 더욱 큰 힘을 주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도 우리 금융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유가증권 운용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리스크를 기초로 하는 운용체제 구축 및 운용평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모든 위험에 대해 너무 둔감했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 대우사태 등의 화를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소망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희망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싶다. IMF 이후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23만 관악 동문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밝혀 좀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총동창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관악인이 사랑을 나누는 새 천년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반드시 사랑이 넘치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즐기는 삶 속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張善珠(76년생·98년 看護大卒)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동문회보에 글까지 올리게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문학작품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알리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4년 대원외고 독어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간호대학을 마치고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2000년 결혼 예정(?)인 張善珠입니다. 병원에 근무한지는 1년 2개월 됐으며 집이 경기도 일산인 관계로 병원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생활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잘 지냅니다.

제 요즈음 취미는 스타크래프트, 특기는 DDR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취미와 특기지만 정말 즐기는데는 남녀노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취미는 클라리넷 연주였는데 무미건조한 지금의 생활에 그리 도움이 되진 않더군요.

저에게 있어 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큰언니의 결혼이었습니다.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 같던 언니가 다른 집으로 멀리 시집을 가버린거죠. 요즘도 집에 가면 종종 언니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올해 초엔 작은언니가 결혼할 예정이구요. 참, 저희 집엔 식구가 많습니다. 언니 2명, 여동생 1명, 남동생 하나에 나, 이렇게 5형제에 부모님.

아직은 간호사가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남들 잘 때 자고 싶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싶기 때문에. 3교대하면 수명도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또 공부도 더 하고 싶구요. 어쩌면 10년 후엔 교수라는 직업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절 아시는 분들께… 연락하고 삽시다. 이메일 주세요.(icedcoffee@hanmail.net)

동정

수상

▲李 燦(51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2월 20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한빛은행이 공동 제정한 제3회 「세종성왕 602돌 대상」을 수상함.

▲辛慶昱(61년 音大卒·서울예고 교장)=지난 12월 2일 한국음악협회가 수여하는 「'99 한국음악상」 음악교육 부문을 수상함.

▲張世一(63년 工大卒·일성 회장)=지난 12월 13일 전경련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최고경영자대상」을 받음.

▲韓昇洙(63년 行大院卒·국회의원·行大院同窓會長)=지난 12월 17일 재경 춘천고 동창회에서 제1회 「상록대상(사회봉사부문)」을 수상함.

▲權純國(64년 農大卒·모교 교수)=지난 11월 23일 농어촌진흥공사가 시상하는 제7회 「농어촌진흥대상(연구개발부문)」을 수상함.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PR협회 고문·本報 論說委員)=지난 12월 29일 한국PR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한국PR대상」을 수상함.

▲崔尙圭(67년 文理大卒·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생물학과장)=지난 11월 4일 한국추리작가협회가 수여하는 제14회 「추리문학상」을 받음.

▲洪性萬(67년 文理大卒·경향신문 사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2월 11일 인천중·제물포고 송년모임에서 「모교를 빛낸 제고인상」을 받음.

▲崔承俊(72년 音大卒·숙명여대 교수)=지난 12월 2일 제18회 대한민국 작곡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함.

▲申成澈(75년 工大卒·KAIST 교수·스핀정보물질연구단장)=지난 11월 24일 「고밀도 정보저장 자성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함.

▲鄭台鳳(80년 音大卒·모교 교수)=지난 12월 2일 제18회 대한민국 작곡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함.

이동·선임

▲鄭回甲(48년 音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2월 15일 대한민국 예술원 임시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됨.

▲閔丙畯(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1월 6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제로터리 3650지구 총회에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임기를 맡을 차차기 총재에 선임됨.

▲安秀桔(57년 工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영국전기전자학회(IEE) 아시아지역 총회에서 2000년 아시아회장에 선출됨.

▲吳淇坪(57년 法大卒·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지난 12월 14일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에 선출됨.

▲徐炳浩(61년 文理大卒·前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지난 12월 15일 대학과 사회단체 등에서 미디어 교육을 맡고 있는 전직 언론인 모임인 「미디어포럼」의 고문으로 추대됨.

▲林東源(61년 文理大卒·통일부 장관)=지난 12월 23일 국가정보원 원장에 임명됨.

〈9면에 계속〉

국제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모교 崔鍾根교수

최근 모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崔鍾根(88년 工大卒)교수(사진)의 논문이 AIME, SPE, ISS, SME 등 4개의 국제학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1999년도 최우수 논문」에 선정돼 「The 2000 Rossiter W. Raymond Memorial Award」를 받는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

崔교수의 논문 내용은 수심 3천미터 이상의 심해에서 석유 탐사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과 장비에 관한 연구이며, 시상식은 오는 3월 13일 미국 Nashville, Tennessee에서 있을 예정이다.

〈燮〉

제2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새로운 천년의 희망, 바로 이 사람(단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동문은 주저 없이 동창회로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에 포상하는 제2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에 아래 요령에 따라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시상

	시 상 부 문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협력」「영광」 부문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00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2000년 3월 17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8면에 이어〉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PR협회 고문·本報 論說委員)=지난 12월 15일 대학과 사회단체 등에서 미디어 교육을 맡고 있는 전직 언론인 모임인 「미디어포럼」의 고문으로 추대됨.

▲**李廷浩**(65년 工大卒·LG석유화학 사장)=지난 12월 6일 한국RC(Responsible Care·환경안전자율책임관리)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출됨.

▲**金正秀**(65년 音大卒·서울 콘서바토리 교수)=지난 12월 18일 전국클라리넷·연주자 및 음악애호가들로 구성된 한국클라리넷협회 초대 회장에 선출됨.

▲**申仲植**(66년 文理大卒·前시사저널 발행인)=지난 12월 1일 월드컵 문화시민중앙협의회 사무총장에 임명됨.

▲**姜玹中**(66년 法大卒·변호사)=지난 12월 8일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朱良子**(66년 大學院卒·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2월 14일 케이블TV인 불교텔레비전(btn)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徐文子**(67년 看護大卒·모교 교수)=지난 11월 30일 제28차 성인간호학회 정기총회겸 학술대회에서 제14대 회장에 선출됨.

▲**李長茂**(67년 工大卒·모교 공대학장)=최근 대한기계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됨.

▲**丘月煥**(67년 文理大卒·前연합통신 상무·本報 論說委員)=지난 12월 15일 대학과 사회단체 등에서 미디어 교육을 맡고 있는 전직 언론인 모임인 「미디어포럼」의 감사에 선임됨.

▲**金春玉**(68년 美大卒·화가)=최근 개최된 한국화여성작가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金信福**(68년 師大卒·모교 행정대학원장·한국행정학회장)=최근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에 선출됨.

▲**潘基文**(70년 文理大卒·駐오스트리아 대사)=지난 12월 20일 외교통상부 차관에 내정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정책기획국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2월 11일 KBS 뉴미디어센터장에 선임됨.

▲**李喆玉**(74년 保大院卒·길의료재단 의료원장)=최근 인천지역 벤처기업인 모임「인천엔젤클럽」창립위원회 회장에 선출됨.

▲**金明坤**(76년 師大卒·극단 아리랑 대표)=지난 12월 8일 국립중앙극장 극장장에 선임됨.

행사·출간

▲**權彝赫**(47년 醫大卒·모교 명예교수·분당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장)=지난 12월 23일 신라호텔에서 후원금 모금을 위한「분당 서울대병원 후원의 밤」행사를 가짐.

▲**邊衡尹**(51년 商大卒·모교 명예교수·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생활관 컨벤션센터에서「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신산업화 과정」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金在淳**(52년 商大卒·샘터사 이사장·本會會長·海石 孫貞道 선생 일대기 출판위원장)=지난 12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孫貞道의 생애와 사상연구」출판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가짐.

▲**沈在箕**(60년 文理大卒·모교 교수·국립국어연구원장)=지난 12월 16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 공개 토론회를 가짐.

〈10면에 계속〉

국내 공학자중 최다 국제논문 발표

인하대 李一恒교수

과학기술부와 KAIST가 미국 EI사의 공학논문색인 자료를 구입, 분석한 결과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국내 공학자중 가장 많은 논문(71편)을 발표한 사람은 인하대 李一恒(70년 工大卒)교수라고 지난 12월 16일 발표했다.

李교수는 예일대 응용물리학 박사, 프린스턴대 펠로우, AT&T BELL연구소, 한국ETRI를 거쳐 인하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지금까지 발표한 국제논문은 2백50여편에 달한다.

현재 李교수는 영국 IEE 왕립 전자공학회 석학회원, 미국 IEEE/LEOS학회 세계본부 한국대표 및 비상임이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燮〉

인제대 白樂晥총장

첫「人濟人性大賞」시상식 가져

지난 12월 9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제1회「人濟人性大賞」시상식에서 연세대 金亨錫명예교수와 韓勝憲(前감사원장)변호사, 제2가나안농군학교(교장 김범일)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人濟人性大賞」은 인제대학교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白樂晥(51년 醫大卒·本會 副會長)총장이 교훈인 正直, 誠實, 勤勉의 덕목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 상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해 온 시민을 매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바른 사회를 향한 미래상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燮〉

뒷줄 좌로부터 운영위원 : 광운대 朴煐植총장, 姜英勳 前국무총리, 高柄翊 前모교 총장, 인제대 白樂晥총장, 玄勝鍾 前국무총리, 權彝赫 前모교 총장, 숭실대 安秉煜명예교수, 학술원 李賢宰회장, 인제학원 白樂暄이사. 앞줄 좌로부터 수상자 : 韓勝憲변호사, 金亨錫교수, 김범일 교장.

〈9면에 이어〉

▲禹保命(61년 農大卒·모교 교수)=최근 중국 북경임업대 명예교수에 위촉돼 올해부터 강의를 할 예정이다.

▲宋 敏(63년 文理大卒·국민대 교수·국어학회장)=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올림픽 파크텔에서 국어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제26회 공동연구회를 개최함.

▲洪性大(63년 文理大卒·상산학원 이사장·本會 副會長·사립중고법인협의회장)=지난 12월 8일 서울 63빌딩에서 「새 천년을 위한 중등사학 정책세미나」를 가짐.

▲權五寬(64년 文理大卒·KIST 박사)=최근 백러시아 국가과학한림원이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음.

▲金秀哲(67년 保大院卒·대한에이즈협회 부산회장)=지난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부산일보 강당에서 에이즈 예방에 대한 행사를 가짐.

▲鄭雲暎(69년 商大卒·경기대 교수·한겨레신문 논설위원)=최근 경제평론집 「세기말의 질주」(해냄刊)를 펴냄.

▲金基道(72년 新大院卒·前국회의원)=지난 99년 6월 마포에 설립한 「한국미디어정치연구회」를 「미디어 2002연구원」으로 개명함.

▲林賑澤(75년 文理大卒·연극연출가)=지난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동숭아트센터에서 「오적」,「소리내력」,「똥바다」,「오월광주」등 창작판소리 세 바탕을 선보임.

▲羅成淑(75년 美大卒·서울산업대 교수)=최근 계간지 「女友報」 제5호를 발행 배포함.

▲朴惠瑛(83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12월 16일 주한프랑스문화원 초청으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金妊衍(93년 音大卒·바이올리니스트)=지난 12월 22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슈트라우스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가짐.

▲鄭建沐(95년 工大卒·97년 大學院卒)=지난 12월 17일 제10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최고 득점을 차지함.

▲金廷珉(96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1월 12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열어 쇼스타코비치, 멘델스존,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을 선보임.

▲吳玹承(96년 音大卒·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지난 1월 10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첼로 독주회를 가짐.

▲구민서(96년 經大院卒·대한투자신탁 리스크관리부 계장)=최근 국제재무위험관리사협회(GARP)가 주관하는 「국제재무위험관리사」시험에 국내 처음으로 합격함.

▲金河準(38기 ACAD·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지난 12월 2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위치한 교원공제회 전북회관의 개관식을 가짐.

▲禹炅仙(1기 SGS·신안건설산업 회장·새마을문고중앙회장)=지난 12월 22일 제19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를 가짐.

〈정리=安興燮 기자〉

강원도 문화 휴식처 탄생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田錫津관장

새로운 지역문화 예술창조의 산실이 될 「진부령 문화스튜디오」(관장 田錫津·59년 美大卒)가 지난 10월 21일 강원도 진부령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향로봉(금강산의 마지막 남쪽 봉우리)자락인 진부령에 국내 최대의 사설 미술관과 조각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서울大人의 발자취를 남길 계획이라는 田동문은 특히 『이곳 속초, 양양, 고성, 인재 등 4개 시·군에 동문 18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나, 모임의 기회가 적어 늘 마음에 걸렸다』고 말하며 『이번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의 개관과 더불어 이곳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뜻을 모아 동창회 지부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동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진부령 문화스튜디오」는 추후 고성군의 마산봉 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술공간과 예술인 마을도 조성할 계획이다.

田동문은 『앞으로 진부령 문화스튜디오가 널리 인식되어 영동지역을 지나는 동문들이나 여행객들에게 예술·문화공간 및 쉼터로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락처 (0392-681-3679) 〈信〉

삼가 명복을 빕니다

모스크바大 윤효진 동문

지난 12월 19일 저녁 모스크바 국립대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윤효진(91년 人文大卒)동문이 사망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연수생인 조중호(91년 人文大卒) 동문이 3도 화상을 입었으며 대우 연수생인 김완수(95년 人文大卒)동문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故 윤효진 동문의 유해는 지난 12월 24일 항공편으로 이송돼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 안치됐다. 타국에서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향학열을 불태웠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박종택 군(85년 法大卒)·박소정 양=1월 16일 12시 30분.

*나준엽(사진) 군(97년 農生大卒)·신희조 양=1월 16일 14시.

*채현일 군(97년 工大卒)·이지연 양=1월 22일 12시 30분.

*장기석 군(95년 工大卒)·김현옥 양=1월 22일 14시.

*고지훈 군(94년 人文大卒)·황현정 양=1월 23일 12시 30분.

*장정은 군(人文大 1년)·임유선 양=2월 12일 14시.

*전성열 군(94년 工大卒)·이윤주 양=2월 13일 12시 30분.

대학원동창회 金圭植회장 동문을 찾아서 한국전통문화학교 金秉模총장

"내년부터 학술대상 제정, 시상할 계획"

지난해 11월 19일 개최된 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모교 金圭植(54년 齒大卒·57년 대학원 석사학위·64년 대학원 박사학위)명예교수를 만나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을 들어보았다.

-그동안의 활동은.

『모교 병원장으로 있을 때는 농촌에 의사를 파견하는 일을 주도하기도 했고, 병원이 소공동에서 지금의 연건동으로 이전할 때 기존 기계들을 수리해서 초·중학교에 실습용 기기로 나눠 주던 기억이 나는군요』

『76년부터 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겸 학술위원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국제규모의 종합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정년퇴임을 하고 지난 97년부터 사당동의 치과종합병원에서 원장직을 맡아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동창회장에 취임한 소감은.

『지난 77년부터 대학원동창회 부회장을 맡아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왔는데 이번에 회장이라는 큰 직책을 맡게되니 기쁨보다는 먼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느꼈던 미비점들을 보완, 발전시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문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하나되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교 대학원장의 도움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동창회는 모교의 단과대학동창회와 겹치는 동문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결집력이 타 동창회에 비해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회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학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독지가들의 협조를 받아 2001년부터 학술대상을 시상할 생각입니다』

『또한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동문들을 대학원동창회에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대학원동창회는 지난 89년부터 인문사회·자연계의 1·2학기 석사과정에 있는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94년부터는 각각 2명씩을 선정,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동문들에게 한 말씀.

『50년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학문적인 부분이 현재 다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인 부분은 더욱 크게 성장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모교에 몸담고 있는 교수분들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연구하며 후학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교수분들이 대다수이지만, 간혹 한번 교수가 되면 안일하게 생각하여 학문에 대한 열의와 의욕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금 일찍 퇴임하여 젊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도 선배로서 미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재관리 첨병 육성에 혼신 다할 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국내 처음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가 문을 연다. 올해 3월 개교하는 이 곳의 金秉模(65년 文理大卒)총장을 만나 앞으로의 운영 계획 및 올바른 문화재 관리의 방향 등을 들어보았다.

-초대 총장을 맡게 된 소감은.

『민족문화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지식과 덕망이 부족한 제가 총장의 책임을 맡게 되니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가려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한국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국민들이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세계인과 대항할 정신적인 무장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이와 더불어 저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문화와 습관 속에서 캐내어 그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시켜, 크게는 세계속에 우리나라 문화를 창달하고 작게는 문화재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훌륭하게 관리하는 첨병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는 어떤 학과로 구성돼 있는지요.

『한국전통문화학교에는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미술공예, 전통건축, 매장문화재학과, 보존과학 등의 학과가 있으며, 대부분의 강의는 실습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대학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이며, 한 가지라도 확실히 할 줄 아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사관학교식의 교육방법도 함께 도입,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론과 개론만으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했던 사람은 아마 졸업이 힘들 것입니다』

-전통음악분야의 학과 개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형문화재가 유형문화재보다 분야가 훨씬 넓은데도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은 이에 관련된 학과가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개설할 것입니다』

-교수 확보에 대해.

『우선 이론 등은 기존의 대학 교수들을 기용하겠지만, 핵심이 되는 실무를 가르칠 사람은 학력을 불문하고 영입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복궁을 복원하는 목수가 꼭 대학을 졸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것이며, 만약 교수로 발령내기가 어렵다면 초빙 혹은 석좌교수 등의 칭호로 그분들이 지니고 있는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새 천년을 맞아 국내 문화재 관리의 나아갈 방향은.

『우선 문화재 관리는 공무원들만의 몫이 아니며, 국민 전체가 민족문화를 아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물이나 도로 등은 1세기 이상을 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1세기 용도로 만들어지는 구조물 때문에 수천년된 문화재가 부서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다른 것은 몰라도 민족문화재를 애호하고 보존하여 후세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문화적인 사명감은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올바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燮〉

뜨락

세월도 비켜간 원로 음악가들의 연주회

서울튜티앙상블 李玉姬(64년 音大卒)리더

얼마 전 원로 음악가 세 분이 모여 실내악을 연주하는 음악회에 갔었다. 이분들의 활약이 우리 나라 음악계를 이끌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70줄에 들어선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청중에게 보여주었다. 무엇이 이들을 무대에 서게 했는지는 청중 모두가 다르게 생각하고 느낌 또한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한가지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연주가 좋았다,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요즈음 우리는 「눈높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분들의 연주를 어떤 눈높이로 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해석이 다르겠지만 그 눈높이 만큼은 상대의 눈에 맞춰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오면서 언제, 몇 살 때가 제일 좋았으며, 만약 되돌아 갈 수 있다면 어느 때로 가고 싶은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나는 대학시절이라고 답할지 모르겠다. 어리지도 않고 학생이면서 성인대접을 받을 수 있으며, 나름대로 자유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대학생활이 만족할 만한 것이었으며, 우리의 여건이 그러했는지 돌이켜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상대방에 눈높이 맞춰야

「연주하신 세 분은 언제가 제일 좋았을까」하고 생각해본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앞만 보고 뛰는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세고 허리가 굽을 때쯤 되어서야 깜짝 놀라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게 무엇인가를 되뇌는게 아닐까.

평생 늙지 않을 것처럼 하던 사람이 노인을 보고서야 자신의 미래를 깨닫게 되는 것도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50세만 되어도 노인 소리를 듣고 직장에서 물러나 주기를 바라고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태이다. 그러니 음악계라고 다르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인가?

인생을 깊이 있게 알만한 나이, 음악의 깊이를 알게 되고 넓이를 이해하게 될 때쯤 우리는 노인 소리를 듣고 무대에서 멀어져가기만 한다. 아무리 컴퓨터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라 하더라도 그것이 할 수 없는 감정과 느낌, 그리고 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모두가 기능공이 되려는 요즘, 아들 만이 대접받는 세상이 정말 된다면 살 맛 없는 세상일 것이고 그것은 끔찍하기까지 하다. 세 분의 연주가는 기능공도 아니고 욕심쟁이 노인도 아닌 오직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일찍 원로 대접을 주고 받는 현 음악계의 풍토에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

관객과 하나가 된 무대

어린이에서부터 80세 선배님까지 다양한 계층의 청중들이 모였던 이번 잔치에서 모두 다르겠지만 단 한가지, 나이가 그 무엇까지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것은 함께 느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내년에도 또 연주 할거야』하시는 이분들의 욕심 아닌 외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믿는다.

희망찬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鄭淑英(95년 環大院卒)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조경부

회사 일로 학교에 들려 보았다.

입사 5년차 인데도 이렇게 회사 심부름을 다니는 나의 처지에 대한 낭패감으로 들린 학교는 나에게 새삼 옛 생활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나만의 생각을 펼치면서 보냈던 그 시간을 회상하니 차가운 겨울 바람이 상쾌하게 귓가를 스쳐 지나간다.

실패를 재도약의 기회로

마치 궤도를 도는 위성처럼 부담이 없었던 나의 역할 테두리와 집 앞 골목길처럼 눈 감아도 보일 것 같던 미래는 나만의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었다. 주어진 목표는 일정 노력으로 얻어지고, 아니! 얻지 못해도 별다른 아쉬움이 없었으니 그저 쉽고 편하게 지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당시 나에게는 현재의 생활이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막연한 자신감에 현재에 안위했던 것이다.

간단한 서류를 교수님께 제출하고 조교일을 하는 동문과 허탈한 인사를 나누고 명랑한 후배의 인사를 뒤로 하고는 다시 오던 길을 걷는다.

졸업 후 바로 입사한 회사는 꽤나 명망있는 좋은 회사에 속했다.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았고 또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 분명했기에 희망에 가득찬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입사 후 5년. 지금의 나는 한 두번의 좌절을 경험했다. 회사를 옮기려는 시도도 해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내가 익힌 기술도 전공 분야에서는 절름발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제는 주어진 것이 아닌, 내가 만든 목표를 위해 고민을 해야 한다.

White Wall. 가장 먼저 여자이기에 부딪쳐야하는 이 벽은 어디서나 나를 가로막아 나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고 나의 가정은 발목에 쇳덩어리를 달아 주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몇 번의 변화 시도가 실패하면 체념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라던가.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높이 들어 올린다.

여자이기에 부딪혔던 벽

허리를 펴고 힘차게 걸어 도착한 회사에서는 또다시 나에게 다른 회사의 도장을 찍어오는 일을 주었다. 흔들리는 전철에 엉덩이를 붙이고서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미래를 계획한다.

맡았던 일을 끝냈으니 내일 내가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은?

오늘은 목요일. 아르바이트 해야 하는 날. 오늘 아침에는 학원에 들리지 못했으니 내일 아침에는 꼭 참석해야지.

오늘 저녁에는 어제하다 남은 공부를 끝내고 암기해야지. 그 시험이 2000년 3월 정도라고 했지?

아하! 남편 와이셔츠도 다려야 하는구나. 남편이 오늘은 통장을 가지고 오려나?….

나는 이렇게 산다. 학창시절에 그리던 나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것입니다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우)121-04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
전화 : 702-2233 FAX : 703-0755 E-Mail : SNUA@ netsgo.com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제261호) 14면 뜨락 필자인 宋玲純동문은 「前마니토바 의대교수」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화제의 동문 Talk

연일학교내 치과보건관리소 禹光均소장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참된 의료인

"장애아 진료, 지금처럼 행복한 때 없어"

『장애아동들에겐 더 많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늘 장애아동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정신지체아 교육기관인 연일학교에 지난 10월 1일 치과보건관리소를 개소한 禹光均소장.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월급은 받지 않는다. 이는 장애아동들을 위한 무료봉사가 禹동문의 주목적이기 때문.

禹동문은 모교를 지원할 당시 1차로 공대를 지망했으나 낙방의 쓴 잔을 마시고 2차 지망으로 치대에 합격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치대가 자신의 적성에 더 맞는 것 같다고.

65년 치대를 졸업한 禹동문은 재학 당시를 회고하며 전쟁 직후라 시설과 교육시스템이 열악해 좀더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특히 禹동문이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당시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 모교측에 유학생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관한 것. 몇 명 안되는 유학생에 뽑혔던 禹동문은 그러나 고학으로 학교를 다니던 터라 여비를 마련하지 못해 갈 수 없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다.

그 후 禹동문은 인천시 중구 신생동에 「우치과」를 개업, 40여년을 치과 진료에 힘써왔다. 그러던 중 이가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못하고, 눈치가 보여 일반 치과병원에도 가기 힘든 정신지체아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미련없이 반평생의 개업 생활을 접은 뒤 이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생각한 것이 더 늦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을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펼치자는 것이었습니다』

禹동문은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그동안 의료활동에 써온 치과 기기와 기자재들을 모두 이곳에 무료로 기증하고 새로 들여놓은 장애인용 설비들도 자신이 부담했다.

『보통 장애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자폐(정신지체)로 나뉘어지는데 그 가운데 특히 정신지체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아이들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표현조차 하기 힘들어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고통을 설명하는 禹동문의 눈에서 그들을 단지 환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식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이 곳에서는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보건 관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아동들의 구강상태를 검사해 그 과정에서 응급을 요하는 사항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주고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치과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평생을 진료하면서 지금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기는 처음』이라는 禹동문은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장애아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비쳤다.

현재 禹동문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책을 집필중이다.

〈信〉

동문기업 탐방

㊷ (주)화인 인터내셔날

생명공학분야 집중 공략, 눈부신 성장 일궈

98년 5월 설립, 치매 예방 건강식품 곧 시판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아름답게 살고 싶은 모든 인간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기업이 있다.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 보육 및 이전과 기술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주)화인 인터내셔날이 바로 그 주인공.

지난 98년 5월에 설립된 화인 인터내셔날은 짧은 역사에 비해, 李熙鬲(78년 農大卒)사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생명공학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30억원의 매출과 함께 16개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李 熙 鬲 사장

특히 화인 인터내셔날이 추진중인 기술보육(Technology Incubation)은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사업 개념으로,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나 실험적인 기술을 개발 또는 완료한 각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자들을 선별해 그 기술의 완성을 위한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끊임없는 시장조사와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 및 국내 기업에 기술을 이전, 기술의 환금화 및 제품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한편 벤처창업과 관련, 각 연구소나 대학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창업 기술의 지적 재산권, 특허권 등 행정상이나 법 규제상의 여러 가지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

화인 인터내셔날은 대형 공장이나 막대한 고정투자만을 고집하지 않고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지식을 선별해 가치(Value)로 창출해내는 21세기형 지식경영의 성공적인 예를 보여주었다.

모교 등 3개 대학의 생명공학 관련 BK21을 지원하고 있는 화인 인터내셔날은 이와 더불어 치매치료제·진통제 등의 의약분야와 농약 및 농작물분야, 미백제·발모제 등의 화장품분야, 식품분야, 환경보호분야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빠르게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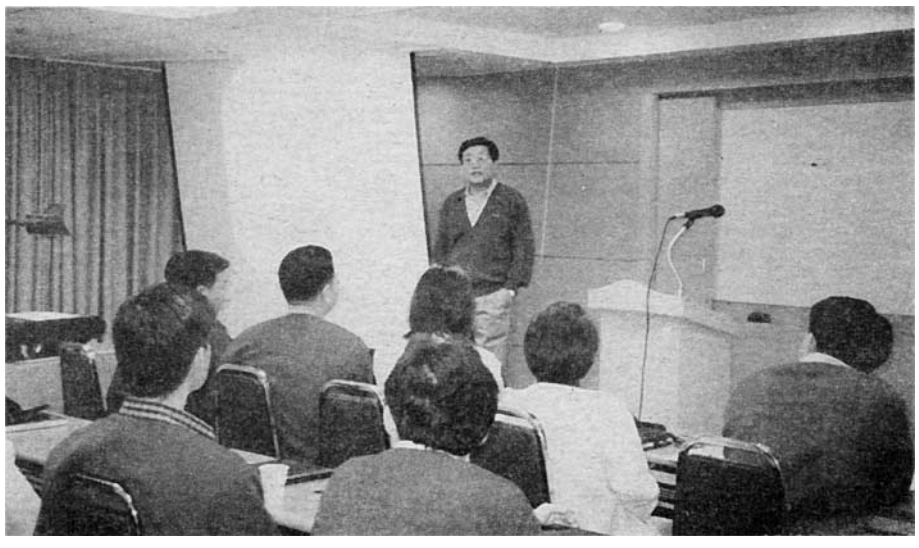
현재 화인 인터내셔날에서 가장 활발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노인성 치매에 관한 것. 새 천년의 첫 제품으로서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의 예방 및 치료에 그 효과가 입증된 INM176을 함유한 건강보조 식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제약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기술이전에 대한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다.

화인 인터내셔날에는 李사장을 필두로 申洙榮(86년 藥大卒)약학 및 의약담당 차장, 朴相再(88년 工大卒)엔지니어링담당 과장, 金晟爀(91년 農大卒)BIO-VENTURE 팀장, 韓仁洙(91년 農大卒)식품 및 식품첨가물담당 대리, 李東訓(92년 農大卒)농약 및 농작물개발담당 대리 등 많은 동문들이 선진한국의 주역으로서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매회사인 화인 엔터프라이즈는 춘천에 위치한 생물산업 벤처기업지원센터의 입주 업체로 선정돼 연구 및 PILOT 규모의 생산까지 가능케 됐으며, 이는 곧 화인 인터내셔날과 함께 생명공학분야의 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화인 인터내셔날은 자매회사와 함께 21세기를 주도할 주요 산업인 생명공학산업의 훌륭한 기술을 발굴, 실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보육하는 것은 물론 한국을 세계 최고의 생명공학 국가로 이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信〉



양평에서 가진 전직원 월말보고회의

국민「PASS카드」발급키로

아시아나 플래티늄 기능 카드도

李明雨부사장(左)이 본회 李世震사무총장과 계약을 체결했다.

본회는 올해부터 기존의 국민 제휴카드외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PASS 카드」및「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23일 국민카드 李明雨(74년 工大卒)부사장, 劉炳玉(86년 經營大卒)제휴전략팀장 등이 본회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과 국민 제휴카드의 추가 발행 계약을 체결했다.

새로 발급될 예정인「PASS 카드」는 지하철 이용이 늘어가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측, 97년 국민카드사가 선보인 다기능 카드로서 한번 발급받은 카드는 충전없이 반영구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지하철 및 전철 구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는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으며 국민은행 최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로서 아시아나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따라 국내선 왕복 항공권 증정, 국민은행 무보증대출(최고 5천만원), 보험(최고 6억원) 무료가입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올해 2월부터 신규 카드 신청을 받아 배포할 예정이다.

멋진 同期生

74년 전자공학과 졸업
21세기 정보통신 산업의 주역

宋文燮

李熙國

陳大濟

表三洙

許 炎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宋文燮·李熙國·陳大濟·表三洙·許 炎동문.

21세기 정보통신의 혁명을 선도할 이들은 모두 74년 모교 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동문들이다.

宋文燮동문은 삼성전자의 HDD(하드디스크 드라이브)사업을 세계 7위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현재 삼성전자 전무로 재직하면서 스토리지(정보 저장)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15년간 LG반도체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한 李熙國동문은 LG반도체가 빅딜로 인해 현대전자에 합병된 이후 LG종합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LG종합기술원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노베이션 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공학상특별상」,「한국공학기술상」,「대한민국과학기술상」등을 수상한 陳大濟동문은 한국의 반도체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인물이다. 현재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몸담고 있으며, 비메모리 사업 및 중앙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다.

현대정보기술 부사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表三洙동문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일인자로 업계에 이미 정평이 나있는 인물.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許 炎동문은 현재 현대전자 전무로, 삼성전자 미주법인에서 근무하다 95년 현대로 자리를 옮겨 현대전자의 비메모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信)

영국 런던 지부

孫斗璿회장 선출

런던지부동창회(회장 姜承求)는 지난 12월 10일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康哲壽(58년 工大卒)고문, 문리대 朴燦一(71년 文理大卒·77년 社會大卒)회장, 상대 曺哲植(72년 商大卒)회장, 법대 宋昌憲(73년 法大卒)회장, 공대 李鳳浩(77년 工大卒)회장 등을 비롯한 많은 동문과 가족이 참석해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孫斗璿(65년 工大卒·BRISKO International 사장)동문(사진)을 선출하고, 총무에 申龍億(76년 自然大卒·삼성전자연구소장)동문을 선임했다.

인도네시아 지부

裵相璟회장 연임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裵相璟)는 지난 12월 6일 자카르타 힐튼호텔에서 부부동반으로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을 가졌다.

사범대학동창회 崔泰祥회장을 비롯해 6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鄭武雄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귀국을 앞두고 자리를 함께 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成耆元교장은『최근 고교 1회 졸업생 76명중 8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한편 96년부터 회장직을 맡아온 裵相璟동문이 만장일치로 임기 2년의 회장에 연임됐다.

캐나다 밴쿠버 지부

새 회장에 金昕동문

밴쿠버지부동창회(회장 崔靑一)는 지난 12월 10일「서울관로얄」에서 동문과 가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金 昕(58년 文理大卒)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鄭晳圭동문

「특지장학금」5천만원 쾌척

지난 12월 29일 태성고무화학 鄭晳圭(52년 工大卒)회장(사진)이 특지장학회 기금으로 5천만원을 본회에 출연했다.

재단법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개별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이번 출연금을 원금으로 하여 鄭동문이 특별히 지정하는 모교 재학생에게 鄭동문의 명의로 올해 2월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화학과동창회

「기금장학금」3천만원 출연

화학과동창회(회장 陸寶根)의 기금운영위원장인 崔明彦(모교 교수)동문(사진 左)이 지난 12월 10일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에게 기금장학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올해 2월부터 화학과동창회에서 지정하는 모교 재학생 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화학과동창회 명의의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 지부

신임 회장에 俞東濬동문 취임

수원지부동창회(회장 邊尙鉉)는 지난 12월 13일 호텔캐슬 영빈관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沈載德수원시장, 李台燮국회의원, 李銀鍾농진청장, 농협중앙회 金勳東경기지역본부장, 모교 李敦求농생대학장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 동문들은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장)동문을 선출하고 감사에 李悌宰(51년 法大卒)·李文漢(73년 獸醫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본회 金在淳회장은 축사를 통해『새해를 맞이하면서 서울大人이 이 나라에 있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일,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잠시 눈을 감고 자문자답해보고, 더 늦기전에 무엇인가 後進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이어 金회장은 신임 俞東濬회장에게 새로 제작한 지부동창회기를 전달하고, 그동안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해온 전임 邊尙鉉회장, 林秀浩수석부회장, 李炳紅간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신임 俞회장은 인사말을 통해『2000년 사업계획을 통해 등산, 골프, 낚시 등 동호회 모임을 결성하고 동문 발굴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다짐했다.

만찬에 이어진「친교의 시간」에는 李瑛熙(74년 音大卒)동문이 가요「이별」을 선보여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燮)

「신년교례회」개최
1월 29일 신라호텔

서울대총동창회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신년교례회를 오는 1월 29일(토) 오후 1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과대학

제3회「함춘 의학賞」시상

金 承 業

高 光 坤

洪 承 奉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12월 14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李吉女회장, 모교 李正相학장, 朴容昡병원장을 비롯해 동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송년의 밤」및 제3회「함춘의학상」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高光坤(82년卒·가천의대 교수)동문이 논문「고콜레스테롤 혈증 폐경기 여성에서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제 Statin 약물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에 미치는 효과」로 연구업적부문 상을 받았고, 洪承奉(83년卒·삼성 서울병원 교수)동문은「간질 병소의 진단율과 완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삼차원 다중영상분석법의 개발」로 연구계획부문 상을 받았다. 또한 金承業(60년卒·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대 교수)동문은「Trasplantation of immortalized human neural stem cells in rat model of Parkinson disease」로 해외부문 상을 수상했다. 이들 3명의 수상자는 교육연구재단, 학술연구재단 그리고 대학진흥재단으로부터 각각 연구비로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상식 후, 98년도 연구계획부문 수상자인 柳亨俊(77년 醫大卒)동문과 이날 연구업적부문을 수상한 高光坤동문의 논문발표가 이어졌다.

보건대학원

신임 회장에 金秀哲동문 선임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朴聖培)는 지난 12월 17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모교 鄭文鎬학장, 李容旭교수를 비롯한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이어진 임원 개선에서는 金秀哲(67년卒·성형외과의원 원장)동문이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金회장은『전임 임원들이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쌓아 놓은 업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앞으로도 많은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고 봉사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과대학

새 회장에 高炳佑동문 추대

상과대학동창회(회장 張禮準)는 지난 1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99년도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을 가졌다.

李珌奭명예회장을 비롯해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張회장은 인사말을 통해『동창회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새 회장을 모시기로 결정했으며 새 천년에는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高炳佑(56년 商大卒·동아건설 회장)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6회·8회 동기회가「뭉치자상」을, 16회 동기회가「돕자상」을 받았다.

마산 지부

총회서 단합된 모습 보여줘

마산지부동창회(회장 李景宰)는 지난 12월 13일 마산 롯데 크리스탈호텔에서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李회장은『동창회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뤄 서울대인의 긍지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역설했다. 이어 申尙澈(59년 師大卒)고문의 금세기 마지막 총회의 뜻을 기리는 축사가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정담을 나눴으며, 푸짐한 경품 추첨과 함께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각자의 장기자랑도 선보였다.

사범대학

유공동문에 감사패 전달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崔泰祥)는 지난 12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본회 李聖秀·卞柱仙부회장을 비롯한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崔泰祥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작금에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며『2만여명의 사대 동문들이 합심하여 교육이 한국사회의 핵심이 되도록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모교 黃載璣학장은 축사를 통해『사범대학 출신들이 전국대학은 물론 모교의 다른 단과대학보다도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는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장학사업 등 후배 사랑의 손길은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同會는 그동안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金璣洙총무와 산정호수 유스타운 李鍾郁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난해 6월 보궐선거를 통해 인천 계양·강화갑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安相洙동문을「99년을 빛낸 동문」으로 선정했다.

경영대학원

송년회 및 특강 자리 마련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禹德昶)는 지난 12월 9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전임 金泓殖·孔大植회장을 비롯해 모교 沈昞求명예교수, 尹桂燮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朴建豪상임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모교 郭秀一 교수가「새천년의 인터넷 세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회장배 테니스 대회 시상식이 이어졌다.

미술대학

3월에「同門展」열기로

미술대학동창회(회장 李信子)는 지난 12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생활관에서 65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올해 3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서울대학교와 새천년」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동문전시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동문전은 새천년을 맞아 동문들의 화합과 21세기 미술대학의 위상을 새롭게 다지는 의미로 마련될 예정이다. (表)

물리교육과

신임 회장에 林璋圭동문 선출

물리교육과동창회(회장 金大植)는 지난 12월 4일 낙성대 부근「백상갈비」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참석자들은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林璋圭(한성과학고 교장)동문(사진)을 선출하고, 부회장에 宋永在(서울과학고 교장)·李鐘郁(은곡공고 교장)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신임 총무에 朴鳳祥(전농중 교장)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同會는 물리교육과 홈페이지내에 동창회 창을 개설, 회원들이 주소변경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물리교육과 사무실 : 880-7748 www.physed.snu.ac.kr)

훈울회

6월 27일 훈울전

미술대학 동문들의 모임인 훈울회(회장 金芝烈)는 지난 12월 6일 신라호텔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孫文子총무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9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2000년도 사업계획안 발표가 있었다.

同會는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1층에서 훈울전을 개최하고, 8월경에 스케치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다.

한편 이날 金素琁, 崔星淑, 黃仁惠, 朴榮愛, 沈賢熙, 趙如珠, 趙載妍, 邊榮惠, 朴素賢, 宋仁玉 동문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했다.

特志 및 基金奬學會
出捐同門과 篤志家 不忘錄

특지장학회는 1구좌에 5천만원을 출연받아서 총동창회 장학재단인「관악회」의 관리하에 출연자가 직접 선정한 장학생에게 출연자의 명의로 영구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학금 출연자 永世不忘錄

특지 및 기금장학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702-2233)로 연락주시면 안내 브로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화학부
초대 沈利澤회장 추대

화학공학과동창회(회장 沈利澤)와 공업화학과동창회(회장 金石中)의 통합체인 응용화학부 동창회가 지난 11월 18일 서초동 소재의 센트로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임 회장에는 현 화학공학과동창회 회장인 沈利澤동문이 선출됐으며, 수석 부회장에는 현 공업화학과동창회 회장인 金石中동문이 선임됐다.

同會는 당분간 화학공학과동창회와 공업화학과동창회가 1년씩 돌아가며 직책을 수행키로 협의했다.

모교 李基俊총장 및 林光洙공대동창회장 등 동문 2백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서는 49회가 최다 참석기로 선정돼 「최다 참석기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법대 26회
梁東信회장 선임

법대26동기회(회장 權純旭)는 지난 12월 7일 역삼동 소재 「아세아 도원」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99년도 활동보고와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바둑동호회(회장 全民基), 골프동호회(회장 金炳潤), 등산동호회(회장 朴錫仁) 및 동문 부인들로 구성된 여학생회(회장 이수자)의 활동보고가 있었다. 특히 등산동호회는 현대상선 高英錫동문의 협조를 받아 신년 1월 뉴밀레니엄 시산제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同會는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梁東信(국민은행 신탁부장)동문(사진)을 선출하고, 그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온 전임 權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학교육과
朴勝安회장 선출

수학교육과동창회(회장 金光植)는 지난 11월 26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朴勝安(서강대 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지난 98년 MBC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민정범(4학년)군이 특별공연을 펼쳐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열띤 찬사를 받았다.

식품공학과
재무·편집간사 등 신설

식품공학과동창회(회장 徐南錫)는 지난 12월 3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재무간사와 편집부간사, 홍보간사직을 신설하고, 회계간사의 명칭을 재무부간사로 변경키로 했다.

특히 高榮泰, 金永培, 朴尙基, 尹學柱, 姜炳錫, 文泰和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간사회와 상임간사회를 엄격히 구분해 의결사항과 집행을 정확히 하기로 했다. 〈信〉

모교소식

환경대학원
관악캠퍼스에 「환경연구관」 준공

좌로부터 두번째 兪원장 金錫洪동창회장, 李基俊총장

환경대학원(원장 兪炳林)는 지난 12월 20일 관악캠퍼스 순환도로변에 위치한 「환경연구관」 준공식을 가졌다.

신축 환경연구관은 96년 6월 14일 기공식을 거쳐 정부 예산 76억6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건축면적 5백30평, 연면적 1천6백89평 규모로 건축됐다.

이 건물은 지상 5층 규모로 1층은 실험 및 공동강의실, 2층은 환경관리, 3층은 도시 및 지역계획, 4층은 환경조경, 5층은 연구소와 전산실로 구성되어 있다.

全錫洪환경대학원 동창회장을 비롯해 많은 교내외 인사가 참석한 이날 준공식에서 兪炳林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국토환경분야에서 전문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해 온 환경대학원이 오랜 숙원이었던 환경연구관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보화시대에 부합하여 첨단연구시설을 갖추게 된 환경대학원은 학제간의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21세기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전문대학원으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로자 포상식에서 환경연구관 건설을 담당한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설계사무소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李基俊총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19세기 시설환경에서 20세기 교수가 21세기에 일할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질책의 소리를 들어왔지만 이제 환경대학원의 경우에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원 26주년을 맞은 환경대학원이 앞으로 관련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조해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미술대학장에
河東哲교수 선임

지난 1월 1일자로 미술대학 신임 학장에 서양화과 河東哲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河학장은 65년 모교 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69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79년 미국 템플대에서 판화를 전공했다.

85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양화과 학과장,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43대 총학생회장
공대 허민 군 당선

모교 제43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비운동권 「광란의 10월」 선거운동본부 허 민(응용화학부 4년), 강제욱(조소과 4년)후보가 정·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12월 2일 진행된 결선투표 개표결과 총유권자수 2만10명 가운데 1만2백40명(51.2%)이 투표, 허 민·강제욱 후보가 4천9백57표(득표율 48.3%)를 얻은 바 있다.

학사편입학제도 개선
내년부터 단대별로 시행

모교 교무처(처장 權斗煥)는 학부졸업생에 한해서만 학부 3학년으로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학사편입학제도를 개선해 다른 대학출신의 학사편입학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르면 2000학년도는 현행대로 시행하고 2001학년도부터는 학사편입학을 원하는 대학만 시행하되 타대학 출신 학생에게도 편입학을 개방할 방침이다. 〈燮〉

문화단신

新 刊

■上告理由書
—金兌鉉 著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金兌鉉(50년 法大卒) 동문이 1981년 이후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직접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를 엮어 발표했다.

민사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이론이 있을 수 있는 상고 기각 판결에 관한 金동문의 소견이 담겨 있다. 〈문원북刊·값22,000원〉

■물가에 서 있는 버들
—尹鍾嫩 著

영국왕립예술협회 종신회원이자 영국펜클럽 정회원인 兒松 尹鍾嫩(57년 文理大卒·홍익대 명예교수)동문이 올해 古稀를 맞이하면서 60여편의 시를 모아 7번째 시집을 펴냈다. 〈화산문화刊·값7,000원〉

■우면산
—韓英淑 著

한국문인협회·한국녹색시인협회 회원인 韓英淑(60년 家政大卒) 동문이 체험적 삶을 통한 깨달음을 60여편의 시에 담았다.

韓동문의 시를 통해 주변의 삶을 바라보는 넉넉함과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다. 〈시와산문사刊·값6,000원〉

■공무원 관리론
—田秀一 外 共著

광운대 교수인 白壺 田秀一(62년 法大卒) 동문이 지난해 회갑을 맞아 후배 교수 16명과 함께 35년간의 행정학 연구 업적을 기리는 이론서를 펴냈다. 〈대영문화사刊〉

■은빛날개 비행기는 슬피우는 백조인가
—辛基南 著

국회의원 辛基南(74년 法大卒) 동문이 솔직하고 다양한 인생담론을 한 권의 책(도서출판 늘봄·발행인 曺恩慶·87년 社會大卒)에 담았다.

그는 『인생의 아웃사이더는 고집스럽고 철저한 모범생이며, 세속의 궤도를 따라 도는 衛星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빛을 내는 恒星』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다. 〈도서출판 늘봄刊·값8,500원〉

■유리바다에 내리는 눈나라
■아름다운 비명을 위한 칸타타
—盧柚燮 著

73년 월간 「풀과 별」에 詩를 발표해 등단한 盧柚燮(76년 師大卒·79년 經營大卒)동문이 두 권의 시집을 펴냈다.

「유리바다에…」(시문학사刊)는 괴롭고, 슬프고, 아름다운 이 땅에 살면서 멀고도 가까운 이상향, 에덴에의 꿈을 그렸으며 「아름다운 비명을…」(시와 시학사刊)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사회생태 차원의 환경시집이다. 〈각권 값5,000원〉

■밀레니엄 韓國 경영전략
—玄鏡柄 著

한국지식문화재단 玄鏡柄(87년 行大院卒)이 사장이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가경영 지침서를 펴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패배의 사관을 불식하고, 승리의 역사에 대한 안목을 제시했다. 〈소사刊·값8,000원〉

〈정리=安興燮 기자〉

동문의 소리

게으름에 대한 뉘우침

옛날 학창시절, 우리는 편지 서두에 늘상 「세월은 유수와 같이…」라는 글귀를 곧잘 쓰곤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알고 난 이즈음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이 두렵기까지 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시간이 가는 것이 두려운게 아니라 해야할 일,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게으름으로 인해 묻어버리고 가는 뉘우침의 연속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그러한 뉘우침조차도 무의식 속으로 숨어버리고마는 생활의 연속이 되고 말았다.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돋이 관광이 만원사례이고 백화점과 상가의 매출이 작년에 비해 몇 십 퍼센트가 상승했으며 거리에는 들뜬 사람들과 자동차들로 북새통이다. 반면 소외된 가난한 이웃과 결식아동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기원전 8세기경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미가는 오늘도 이곳에서 외치고 있다.

『너희가 공의를 행하는 것에 게으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게으르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에 게으르구나!』 **朴香淑(62년 美大卒)서울여대 조형학부 교수**

세느강과 미라보 다리

이제는 추억의 단편으로 남게 되었지만 내가 동숭동 캠퍼스에서 공부할 때, 그 곳 정문을 끼고 흐르는 대학천을 우리는 「세느강」으로, 그리고 정문에 맞대어 놓인 그 개천 위 다리를 「미라보 다리」라고 불렀다. 누가 붙인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암울한 시대를 살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프랑스 파리는 동경과 낭만의 상징이었던 고로 비록 시궁창 물이 흐르고 시시때때로 험상한 바리케이드가 자리잡곤 하였어도 그 이름만은 젊은이들의 꿈과 캠퍼스 낭만의 대명사임에 틀림없었다.

그후 실제로 처음 파리의 세느강을 본 느낌은 상상보다 훨씬 왜소한 강의 규모하며 여러 다리 중에서도 초라한 편인 미라보 다리를 발견하고는 적이 실망도 하였지만, 한국에서 온 여인들이 말로만 듣던 미라보를 마주하고 나서는 감격하여 울더라는 안내인의 설명을 듣고는 새삼 꿈의 소중함도 되새길 수 있었다.

세느강에 비하면 우리 한강의 위용과 주변 경치의 아름다움은 세계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으로 느껴진다. 이 아름다운 한강을 가진 서울을 부러워하며 자연의 축복이라고 단정짓는 외국인들은 많이 접해 보았지만, 실상 우리 자신들은 우리 것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임을 발견하곤 씁쓰레할 뿐이다.

그 이름난 세느강의 유람선을 타 보았더니 강변의 정경들과 그 사연들을 소개하는 안내인의 해설과 자랑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우리 한강의 유람선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할까? 결코 아니다. 여의나루에서 출발한다면, 수많은 가볼만한 성지가 건너에 있으니 그보다 더 청중을 숙연케 만드는 사연들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사육신묘를 가리키며 우리 민족의 충효사상을 설명할라 치면 끝이 없을 것이고, 또 한강대교 밑을 지날 때는 한국전쟁과 다리에 얽힌 쓰라린 미사를 일러주면서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의 저력을 자랑하려면 침이 마르지 않겠는가? **任正彬(74년 文理大卒)세이브휴즈테크 회장**

향기 없는 사이버 세상

서기 2000년이 도래하기도 전에 사이버 시대의 전주는 이미 울린 것 같다. 기업마다 이-비즈니스(e-business)를 선점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하고 있고 각국이 정보통신 분야에 배정하는 예산도 상상을 초월한다. 블루칩의 개념도 굴뚝 산업에서 인터넷 및 정보통신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N세대는 머드게임에 푹 빠져 있으며 스타크래프트의 챔피언은 사이버세대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 데이트레이딩을 포함한 개인 주식거래의 상당부분이 사이버 거래이며 2000년에는 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설 전망이다. 미국에는 순수 사이버 대학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자우편은 편지를 대체한지 오래되었다. 정보검색, 상품주문, 대금지급, 경매,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기술발전이 이루어 낸 사이버 세상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진정 윤택해지고 있는가?

오늘 하루는 컴퓨터 스크린과 휴대전화를 끄고 그리운 이에게 편지라도 직접 써보자. 존경하는 옛 은사나 부모님, 또는 적조했던 친구라면 더욱 좋겠지만 매일 얼굴을 보는 배우자나 자식이 그 대상이면 어떠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주고 받는 전자우편이나 음성메시지로는 사람의 향기를 전할 수 없다. 운이 좋으면 답장을 편지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슬픈 얘기지만 이 편지는 곧 등장할 화상 전화에 앞서 우리가 받는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기 전에 산이라도 한번 올라가 보자. 인파로 붐비는 주말이 내키지 않으면 평일 하루 휴가라도 내면 어떠랴. 벗이 스스로 찾아와 동행하면 더욱 좋겠지만 혼자라도 전혀 외롭지 않다. 오르는 길목에서 밟히는 색바랜 낙엽 소리나 산등성에서 잠깐 쉴 때 땀을 식히는 바람에서 삶을 느낄 수도 있다. 아직 사이버 세상은 이것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智弘珉(83년 經營大卒)세종대 경영대학 교수**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 99년 11월 17일~12월 3일·一般 : 99년 11월 17일~12월 3일〉

회 장 단

▲부회장 金性洙=1백만원
▲부회장 朴晟容=1백만원
▲부회장 姜敏求=1백만원

관 악 회

▲이 사 許 浚=30만원

상 임 이 사

▲朴聖培 보대원동창회장=20만원

이 사

◇人文大學

▲정세혁㊽제일모직

◇家政大學

▲최규련㊹수원대 교수

◇看護大學

▲김금순㊷서울대 교수
▲박정희㊽마산간호전문대 교수
▲이정자㊾충무병원 실장
▲정병석㊺방주병원 기획실장

◇工科大學

▲고명삼㊺서울대 명예교수
▲곽영필㊵도화종합기술공사
▲김도심㊽신아화학공업 고문
▲김영하㊹한국수자원기술공단
▲김재환㊼인터렉상사(주)
▲김정수㊷前현대정공(주)
▲김정옥㊵한국고속철도공단
▲김찬욱㊾이수전자 고문
▲김창현㊵신화건축사社 대표
▲김필한㊸대마광업(주) 전무
▲김효철㊹서울대 교수
▲나 준㊺롯데정보통신
▲목영일㊵아주대 교수
▲박찬민㊸LG클럽 부사장
▲백영학㊸前한국전자통신硏
▲백종기㊽태광특수기계 대표
▲설원길㊶원영기업 대표
▲성응모㊺엔지니어링 서비스
▲안상영㊸부산광역 시장
▲윤석구㊼해회석유개발협회
▲윤종구㊻선일기업 대표
▲이기창㊽
▲이길범㊽유일건축사社
▲이대원㊻前국제전선 고문
▲이동진㊽현대건설(주) 차장
▲이시우㊶(주)페트로코리아
▲이웅희㊾국회의원
▲이형도㊼삼성전기 사장
▲장기옥㊽前한국전력기술(주)
▲전계묵㊶(주)포스에너지 사장
▲정경진㊼종로학원 원장
▲정범식㊶호남석유화학(주)
▲정석현㊺前서울시지하철공사
▲정재은㊶조선호텔 명예회장
▲최동재㊺前동일제강(주)
▲함명호㊷건풍상사 사장
▲황규승㊽고려대 교수

◇農科大學

▲곽지상㊼수안보온천장호텔
▲구자웅㊷전북대 교수
▲김경욱㊵모교 교수
▲김석동㊵농진청 과장
▲김재정㊸前한국종묘協 회장
▲박윤근㊾시사문화(주) 대표
▲박정윤㊵前한국식품개발硏
▲심재익㊸충북제사(주) 회장
▲이재기㊼동암토건(주) 대표
▲장우상㊼한국청소년남연맹

◇文理科大學

▲강성위㊻외국어대 명예교수
▲김형오㊶국회의원
▲김희준㊺전북대 교수
▲노원욱㊾변호사
▲박용환㊻중앙공무원 교육원장
▲박준규㊽국회의장
▲서재만㊸외국어대 교수
▲손대연㊻前한국기술금융
▲오영일㊺(주)우일정공 대표
▲윤 식㊹前산업연구원
▲윤병익㊵통일연수원 교수
▲이광웅㊸모교 교수
▲이근무㊵아주대 교수
▲이원홍㊷前간행물윤리위원회
▲이철배㊷LG클럽 상무
▲조규배㊵(주)효림모라 대표
▲최서영㊽노원종합유선방송국
▲최정호㊼울산대 석좌교수
▲현소환㊶청룡회 회장
▲황경호㊽

◇美術大學

▲곽원모㊵중앙대 교수
▲유종민㊹중앙대 교수

◇法科大學

▲강경식㊶국회의원
▲강대석㊶서울지검 검사
▲강보현㊷변호사
▲강현중㊻부정방지대책委
▲경익현㊶前한일개발(주)
▲김기섭㊽변호사
▲김상철㊽상진산업(주) 대표
▲김상훈㊺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세훈㊽평안섬유(주) 회장
▲김영삼㊺변호사
▲김영훈㊵대성산업 사장
▲김완기㊸변호사
▲김완식㊵변호사
▲김응재㊷前대양도료상사 사장
▲김진무㊹前산요반도체(주)
▲노순길㊸변호사
▲민수광㊹현대건설(주) 전무
▲박석규㊾(주)한양유통 이사
▲박연철㊷변호사
▲박종성㊼변호사
▲박홍식㊷김·신·유특허법률社
▲서성식㊾외환은행
▲신희택㊵변호사
▲심연택㊵변호사
▲여상규㊼변호사
▲여정구㊽변호사
▲원세훈㊹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유혁근㊻한국신용정보(주)
▲윤교중㊷(주)하나은행 부행장
▲이기현㊺前보신물산(주)
▲이범재㊷용민인터네셔날 사장
▲이봉래㊹한국전력 기획본부장
▲이영대㊺서울고등법원판사
▲이용웅㊺광주지방법원장
▲이종상㊽동원증권(주) 고문
▲이종신㊿코리아트랜지트
▲이해규㊹삼성중공업 사장
▲이휘영㊼LG화재 고문
▲임규오㊾변호사
▲임대규㊽변호사
▲정경택㊹변호사
▲정세용㊽변호사
▲정재일㊻한국산업리스 회장
▲지원훈㊺예술의전당 감사
▲지홍식㊹前한승철강(주)
▲최규영㊿前한국해운조합
▲허규철㊼고려감정평가법인

◇師範大學

▲김석현㊿한양대 교수
▲김용일㊾숙명여대 교수
▲김찬균㊽세계일보 부사장
▲김충언㊸동작고 교장
▲신동일㊽(주)경인유조 회장
▲이 찬㊵한국문화지리학회
▲이돈희㊿모교 교수
▲장기욱㊵신성대학 본부학장
▲최종욱㊽이화여고 교장

◇商科大學

▲강신돈㊼국민대 교수
▲고학모㊿대주무역 사장
▲권태명㊹前(주)동아출판사
▲권태인㊹前한국종합기술공사
▲김동영㊸(주)서한 대표
▲김사철㊵前(주)풍산 감사
▲김용요㊾前서울은행 전무
▲김웅태㊼신영증권(주) 이사
▲김천옥㊷국제이화공업 대표
▲김철홍㊻대우정밀공업 부사장
▲김홍준㊺한국수출입은행
▲박성석㊺한라그룹 상임고문
▲백영탁㊿서광기획광고 대표
▲송진섭㊻前한미강업(주)
▲위기철㊻아산레미콘 대표
▲유명희㊵
▲유병인㊹前조흥은행 감사
▲이 연㊸삼성석유화학 고문
▲이광수㊹前거평금융 소그룹
▲이상호㊵(주)한진건설 전무
▲이용구㊸한비산업(주) 대표
▲이용호㊼(주)협진양행 회장
▲이창웅㊺화남상사 사장
▲이태형㊸前수자원공사 사장
▲이한섭㊿한전산업개발 부사장
▲이희수㊽(주)두산백화 사장
▲장순규㊾아리통상(주) 대표
▲정종득㊺벽산건설 사장
▲조의진㊺호진워더스(주)
▲조택구㊽효신콘크리트 부회장
▲진성주㊹평해광업개발 부사장
▲최수영㊽동아출판사(주)
▲한수길㊻롯데제과(주) 대표
▲허성길㊹나라통상(주) 대표
▲홍 철㊾前국토개발硏 원장
▲홍성주㊹서울투신운용 사장
▲황병태㊽前국회의원

◇獸醫科大學

▲계봉구㊵동원신약(주) 대표
▲김성수㊽장성축산업협동조합
▲김재원㊺(주)버박코리아 회장
▲김종영㊷한국사노피(주)
▲김태현㊷정원종돈장 대표
▲김홍욱㊽공안당한의원 사장
▲윤무중㊻한국야쿠르트유업
▲윤화중㊽건국대 교수
▲이원철㊽대한수의사회 상무
▲전동룡㊻한국양돈진흥사협회

◇藥學大學

▲권오탁㊹천지당약국 약사
▲김명수㊺KIST응용화학부
▲김영택㊺한국복지약국 약사
▲김원석㊿두만약국 약사
▲김진훈㊾제일제당 생산부장
▲김태욱㊸호남약국 약사
▲김태윤㊾(주)WELL COMM.
▲나명철㊾나약국 약사
▲유영필㊾광성약국
▲이홍래㊻삼보약국
▲홍기정㊹충청귀약국 약사

◇醫科大學

▲김명주㊷한강정형외과의원장
▲김명준㊸김명준외과의원
▲김예원㊹김예원내과의원장
▲김진규㊻모교병원 교수
▲김해룡㊽김해룡산부인과의원
▲노 영㊼성형외과의원장
▲노준량㊻모교병원 교수
▲박명욱㊼성형외과의원장
▲박성구㊻자선산부인과의원장
▲박인서㊿삼성제일병원장
▲서병준㊻서병준산부인과 원장
▲서창해㊾인하대병원 교수
▲선호영㊽선병원 이사장
▲신동휘㊷신동휘신경외과원장
▲오정성㊸오정성산부인과
▲유경상㊿대화외과의원장
▲윤해근㊻윤중의원장
▲이도영㊾충무병원장
▲이순탁㊽평화내과의원장
▲이학중㊽단국대 교수
▲정을삼㊻전주예수병원 과장
▲정태완㊿영일의원 원장
▲주영식㊻주영식이비인후과
▲한대희㊼시립보라매병원장
▲한만희㊸대명의원 원장
▲한명렬㊶한일의원 원장

◇齒科大學

▲강기봉㊿강치과 원장
▲강영만㊶은성치과 원장
▲강태성㊼강태성치과 원장
▲고관성㊿고관성치과 원장
▲김규진㊿김규진치과 원장
▲김재곤㊽김재곤치과 원장
▲김종두㊾명성치과 원장
▲김종철㊼모교 교수
▲남승우㊾남부치과 원장
▲민병진㊼서울치과병원장
▲박영백㊾요셉치과 원장
▲배유홍㊻배유홍치과의원장
▲변영남㊾성신치과의원장
▲신경호㊶신경호치과 원장
▲이영대㊹삼선치과 원장
▲이영애㊸광민치과 원장
▲이준기㊾이치과 원장
▲정해원㊿정해원치과 원장
▲조성복㊾조치과의원 원장
▲최승은㊿최승은치과 원장
▲최재합㊶삼양치과 원장
▲한경수㊽원광대 교수
▲황오현㊻황오현치과의원장

◇大學院

▲김응진㊾노원을지병원

◇經營大學院

▲공대식㊽대한설비공업 사장
▲유진성㊼(주)오성코퍼레이션
▲허형무㊷동선합섬(주) 상무

◇保健大學院

▲구성회㊾서울보건전문대 교수
▲김대규㊻前한국결핵사편찬실
▲변종화㊼한국보건사회연구원

◇司法大學院

▲안석태㊺변호사

◇行政大學院

▲김상영㊺전자신문사 대표
▲황두영㊾한국새마을금고학회
▲황인성㊺금호그룹

◇環境大學院

▲이재억㊼도화종합기술公 전무

일 반

◇人文大學

▲공종민㊽ ▲권형택㊽ ▲김기모㊽
▲김대경㊷ ▲김영길㊾ ▲김영훈㊾
▲박남식㊶ ▲박형욱㊶ ▲박홍준㊾
▲신용권㊷ ▲원종례㊼ ▲원혜영㊼
▲윤병우㊽ ▲윤종범㊶ ▲이광용㊺
▲이옥정㊽ ▲이유선㊻ ▲이인용㊸
▲이장욱㊶ ▲이종은㊾ ▲이창화㊻

▲이화자87 ▲장희구86 ▲정인상78
▲정지용92 ▲정회훈65 ▲조해영68
▲조효진91 ▲천현정90 ▲최정선88

◇社會科學大學

▲강선남95 ▲고창석63 ▲권 일83
▲김경수97 ▲김경태98 ▲김광회96
▲김교문77 ▲김규연95 ▲김기철65
▲김기현89 ▲김민수96 ▲김석한87
▲김선배86 ▲김성권84 ▲김성훈62
▲김수호76 ▲김용성89 ▲김우종86
▲김원중86 ▲김지호82 ▲김충환77
▲김현구97 ▲김형태97 ▲김환영85
▲김후일86 ▲김희남82 ▲남승배80
▲노영훈81 ▲노태선97 ▲맹주석85
▲민경철83 ▲박 경85 ▲박 찬79
▲박광식96 ▲박규헌91 ▲박만순81
▲박상륜87 ▲박상원94 ▲박세웅92
▲박장희90 ▲박재진96 ▲박정숙89
▲박정애93 ▲박종환91 ▲박중구80
▲배선영82 ▲배영수94 ▲배익준92
▲서명국88 ▲서명국90 ▲선경래90
▲성만석96 ▲손광락78 ▲손진운82
▲송기호89 ▲신기덕78 ▲심일혁93
▲양권모89 ▲양승찬88 ▲오정수83
▲오호일83 ▲위혜승95 ▲유성용88
▲유시량80 ▲윤용니83 ▲이광오79
▲이동진83 ▲이민호84 ▲이병성93
▲이상원88 ▲이세용82 ▲이영훈83
▲이재구80 ▲이재덕77 ▲이종선93
▲이종호87 ▲이준택89 ▲이진규89
▲이창수89 ▲이창조96 ▲이창한88
▲이현철78 ▲이홍철82 ▲장상기81
▲장은미86 ▲정경민88 ▲정광용95
▲정규호95 ▲정길호89 ▲정상호93
▲정성윤92 ▲정영목92 ▲정현옥91
▲제정원95 ▲제정임86 ▲조백상80
▲조성천93 ▲조은기89 ▲주홍민95
▲진병태87 ▲채은병95 ▲천민근97
▲최 현89 ▲최관병93 ▲최원범92
▲최정선87 ▲최진무93 ▲최창원89
▲최효종87 ▲최희덕97 ▲표영선91
▲표인수81 ▲하동완90 ▲한성희95
▲한순구91 ▲한영기82 ▲홍남주76
▲황병웅94 ▲황윤환97

◇自然科學大學

▲강병호94 ▲강봉주88 ▲김상균88
▲김상희95 ▲김지원99 ▲김홍종78
▲문희록76 ▲박가현95 ▲박명흥77
▲박준상85 ▲송기호93 ▲안대영77
▲이장우76 ▲이창헌89 ▲정동회96
▲정명관87 ▲정익교76 ▲최성화89
▲황준혁99

◇家政大學

▲강은영88 ▲권서현96 ▲김경옥73
▲김남미77 ▲김미영85 ▲김신향87
▲김용숙73 ▲김인옥83 ▲김정희76
▲김향숙75 ▲남택정72 ▲박문학64
▲반영하89 ▲손정민85 ▲송인영75
▲이보숙80 ▲이영은89 ▲이진영77
▲이창배61 ▲이창숙83 ▲임서영83
▲임영순89 ▲조길수78 ▲조정애61
▲조혜영80 ▲조혜옥63 ▲주정일46
▲한순옥61 ▲황혜신88

◇看護大學

▲강성숙82 ▲고명진70 ▲고혜명69
▲곽은영86 ▲곽인자87 ▲권인각81
▲근효근93 ▲김경화87 ▲김기주70
▲김영숙79 ▲김옥련70 ▲김정수88
▲김정희89 ▲김화순74 ▲도병순86
▲박명숙93 ▲박정자66 ▲백월랑63
▲사경숙72 ▲설미이96 ▲소형선77
▲손승희98 ▲신병순78 ▲신숙희70
▲양영희77 ▲왕준숙76 ▲윤영희79
▲이경자66 ▲이영자63 ▲장내원49
▲장명숙68 ▲장영순88 ▲조영순57
▲주명순78 ▲주혜경88 ▲천성혜88
▲한순묘66 ▲허정원73

◇經營大學

▲강돈형84 ▲강문정97 ▲강인순83
▲고승철80 ▲김명관86 ▲김명애89
▲김민용94 ▲김영삼93 ▲김원선81
▲김형준89 ▲김효준95 ▲김희석96
▲류승철96 ▲박광민80 ▲박기준89
▲박정빈91 ▲박종환95 ▲박채균91
▲서보성90 ▲서영익88 ▲서원석77
▲송덕호82 ▲송석진97 ▲송성호84
▲신원순92 ▲오상조91 ▲우범기89
▲원효성83 ▲유필화79 ▲윤광열91
▲이경미97 ▲이민호97 ▲이선중81
▲이영우81 ▲이원락88 ▲이재희87
▲이정원91 ▲이정은97 ▲이종근78
▲이철환88 ▲이현용95 ▲전영조95
▲전용배86 ▲전은석90 ▲전종배86
▲정기호82 ▲정성진96 ▲조재근80
▲천한우83 ▲최우현94 ▲한종철83
▲황현순90

◇工科大學

▲강대신72 ▲강대영66 ▲강문호96
▲강병철97 ▲강수준78 ▲강용규56
▲강우식58 ▲강재원92 ▲강철호75
▲강치행78 ▲강현태73 ▲경인수82
▲고유진78 ▲고준수76 ▲고창모96
▲고창현80 ▲공용성79 ▲곽무헌72
▲구자남88 ▲구정기77 ▲권영한78
▲권혁선76 ▲김경수70 ▲김규태70
▲김규택49 ▲김기웅65 ▲김기원63
▲김남희74 ▲김대규65 ▲김대익78
▲김동인66 ▲김득수76 ▲김란수89
▲김병호82 ▲김봉중62 ▲김석근57
▲김선재86 ▲김성섭79 ▲김성찬60
▲김성호82 ▲김성환88 ▲김신우81
▲김영남70 ▲김영웅74 ▲김용관99
▲김용완81 ▲김용한57 ▲김원태68
▲김유석94 ▲김인길76 ▲김재익75
▲김재학94 ▲김재한58 ▲김재훈81
▲김정구69 ▲김정국70 ▲김정환74
▲김정환85 ▲김종래95 ▲김종순88
▲김종천87 ▲김준호64 ▲김중찬81
▲김진철70 ▲김진태95 ▲김창업83
▲김철수70 ▲김택남79 ▲김형민81
▲김홍재87 ▲나성웅76 ▲나종태71
▲남상율78 ▲남시도63 ▲남정수71
▲노경수86 ▲노병환80 ▲노의철84
▲류철호96 ▲류춘희68 ▲문명남67
▲문인삼59 ▲문인수72 ▲문종윤95
▲민성기71 ▲민화식75 ▲박건유64
▲박관수85 ▲박기병81 ▲박명식78
▲박명철76 ▲박민규91 ▲박병하80
▲박상덕76 ▲박상문81 ▲박상신89
▲박상호88 ▲박석봉75 ▲박세춘57
▲박승구90 ▲박용호87 ▲박원근86
▲박은미86 ▲박응준82 ▲박일휴66
▲박재현86 ▲박정호96 ▲박종규92
▲박종극92 ▲박종순73 ▲박종술68
▲박종철50 ▲박종현97 ▲박준형74
▲박찬호63 ▲박현길79 ▲박호창58
▲박환정64 ▲방용일69 ▲백광필79
▲백윤해62 ▲백윤흥88 ▲변선호65
▲변영삼81 ▲변영진70 ▲서기식66
▲서동호63 ▲서명우91 ▲서명환63
▲서용성95 ▲서정희64 ▲서진구77
▲성관영76 ▲성현택99 ▲손연규79
▲손의식76 ▲송동익78 ▲송병규76
▲송상헌86 ▲송완근58 ▲송요승62
▲송창수87 ▲송태상72 ▲신건일70
▲신광재91 ▲신영호81 ▲신종섭83
▲신중호76 ▲신필수73 ▲신현섭77
▲심응섭75 ▲심형보58 ▲안 섭83
▲안복신80 ▲안세훈65 ▲안재우95
▲안진홍82 ▲안학수55 ▲양동률54
▲양삼주89 ▲양세학81 ▲양영일72
▲양우선92 ▲양홍종76 ▲양흥석47
▲양희찬68 ▲엄두호89 ▲여영환90
▲오경섭67 ▲오교선83 ▲오길영42
▲오영국89 ▲오영두77 ▲오영수61
▲오인택65 ▲오택길70 ▲유완영66
▲유종선81 ▲유준만70 ▲유홍렬64
▲윤여경52 ▲윤영식73 ▲윤인선79
▲윤정호74 ▲이건국68 ▲이경복94
▲이관수72 ▲이광수70 ▲이광순65
▲이광형68 ▲이규철71 ▲이기성82
▲이기호77 ▲이기홍83 ▲이달수73
▲이대우74 ▲이덕영81 ▲이동규63
▲이동일88 ▲이무진57 ▲이민수99
▲이민하55 ▲이범환97 ▲이병건79
▲이병철81 ▲이보호61 ▲이봉환72
▲이상길81 ▲이상린59 ▲이상홍60
▲이선환56 ▲이성곤61 ▲이성관72
▲이수훈60 ▲이순병72 ▲이승재99
▲이영대81 ▲이영용94 ▲이영종78
▲이완수68 ▲이용각81 ▲이용벽81
▲이용호92 ▲이원복58 ▲이원호95
▲이윤용61 ▲이윤표81 ▲이의일65
▲이일항70 ▲이재영62 ▲이재윤88
▲이재철79 ▲이정일65 ▲이종명90
▲이종수79 ▲이진균96 ▲이창수85
▲이창우80 ▲이채록84 ▲이청원67
▲이태순83 ▲이태홍75 ▲이현구88
▲이현우58 ▲이현호91 ▲이홍기67
▲이효추84 ▲이희두56 ▲이희성78
▲임 욱91 ▲임광수80 ▲임규진72
▲임석균64 ▲임영호54 ▲임용웅67
▲임주섭87 ▲임창복70 ▲임채경75
▲장 덕78 ▲장경현84 ▲장상목82
▲장세일63 ▲장순흥76 ▲장인경77
▲장준원79 ▲장창학74 ▲장하균79
▲장한익77 ▲장현봉80 ▲전성찬84
▲전원일64 ▲전홍규69 ▲전화성67
▲정건식59 ▲정규필61 ▲정기태87
▲정대영92 ▲정무진69 ▲정범진86
▲정순벽49 ▲정연호75 ▲정영우68
▲정익주72 ▲정재길60 ▲정진구73
▲정태호57 ▲정현만62 ▲정형근75
▲조규남76 ▲조남일65 ▲조성호85
▲조영종83 ▲조영호82 ▲조용준60
▲조인준94 ▲조재병79 ▲조철제61
▲조치룡83 ▲조태원82 ▲조현영57
▲주진윤70 ▲진윤태71 ▲진정조78
▲차상목70 ▲채성기63 ▲채효식83
▲최경숙78 ▲최도영87 ▲최동호70
▲최병준99 ▲최선용57 ▲최성수92
▲최윤일64 ▲최은철81 ▲최재영87
▲최준식67 ▲최지혁98 ▲최철준68
▲최춘근72 ▲최하식49 ▲한광석70
▲한두현63 ▲한상국62 ▲한상철71
▲한상현88 ▲한순윤62 ▲허 준90
▲허준호90 ▲현범석92 ▲홍 윤72
▲홍기세57 ▲홍기표71 ▲홍남표59
▲홍성하81 ▲홍재도75 ▲홍종민68
▲홍현민79 ▲황봉동80 ▲황인범78
▲황인영87 ▲황종일75 ▲황찬백55

◇農科大學

▲강봉춘63 ▲강영현76 ▲고문영52
▲고영진80 ▲곽유신86 ▲권오완60
▲김 현65 ▲김경만56 ▲김근영69
▲김병모93 ▲김병재91 ▲김복진64
▲김수영91 ▲김용관89 ▲김윤기76
▲김재윤72 ▲김정섭90 ▲김주옥79
▲김철산83 ▲김태우94 ▲김태현50
▲김호영55 ▲김훈규61 ▲남구한64
▲남장우78 ▲노재후64 ▲류병후77
▲류소명99 ▲마종선90 ▲문태화75
▲민병운56 ▲민옥기80 ▲박동철64
▲박종문71 ▲서공룡71 ▲서영호92
▲설동섭57 ▲손헌수80 ▲송기철78
▲송재정78 ▲신쾌승73 ▲신해상70
▲심정근64 ▲안인옥77 ▲오상수72
▲오충일66 ▲오태광78 ▲용환운61
▲우기원60 ▲유영선84 ▲유진춘71
▲윤여승90 ▲윤영기70 ▲윤진영70
▲이동구73 ▲이동욱60 ▲이동협83
▲이무성70 ▲이무원85 ▲이범수77
▲이범재69 ▲이병갑57 ▲이상옥82
▲이석건70 ▲이석순66 ▲이세연84
▲이승철84 ▲이영일71 ▲이재문65
▲이종기64 ▲이종호56 ▲이준재63
▲이혜근71 ▲이희설78 ▲임상녕69
▲임용호86 ▲장석원64 ▲장정동55
▲전계상58 ▲전우방61 ▲정돈철72
▲정수봉65 ▲정연택87 ▲정용규66
▲정하경71 ▲조남길72 ▲조치흠78
▲조태호58 ▲지희권93 ▲최석준79
▲최승주64 ▲최정해64 ▲하현철88
▲한강완64 ▲한계창74 ▲한상찬65
▲허찬행82 ▲홍성하75 ▲홍양현90
▲홍재훈76 ▲황갑수52

◇文理科大學

▲고상빈57 ▲권오규57 ▲권용우74
▲권혁웅63 ▲김광억73 ▲김동렬64
▲김동선64 ▲김미린67 ▲김병상73
▲김부남70 ▲김승국60 ▲김영윤57
▲김영작64 ▲김용석58 ▲김용표72
▲김용호73 ▲김재민62 ▲김재섭68
▲김정강59 ▲김정수72 ▲김종구57
▲김종국71 ▲김종은74 ▲김찬근73
▲김철남64 ▲김해도63 ▲김현규63
▲김홍철66 ▲나형수66 ▲남대극67
▲문병택71 ▲문승의66 ▲문옥표73
▲문희화60 ▲박 무71 ▲박기안72
▲박동훈65 ▲박옥순63 ▲박은수50
▲박재열75 ▲박종술61 ▲박창정73
▲변중섭52 ▲서해길58 ▲손일석63
▲송 관65 ▲송주상74 ▲송준오66
▲신병진57 ▲신태건71 ▲신현준65
▲안원태56 ▲안청길64 ▲양갑석63
▲오수국74 ▲온창일71 ▲우성규70
▲유민성71 ▲유종화74 ▲이기헌74
▲이명석66 ▲이민우65 ▲이병혁71
▲이병훈62 ▲이수우52 ▲이순자71
▲이신행64 ▲이영수68 ▲이원세75
▲이이석63 ▲이정훈57 ▲이종석68
▲이창화71 ▲이철수72 ▲이한국55
▲임한순70 ▲장동식55 ▲장영태68
▲장정행67 ▲전명애66 ▲전해종47
▲정 해50 ▲정구훈70 ▲정미자75
▲정하룡52 ▲조상수71 ▲조익규48
▲채정자68 ▲천병희60 ▲최광천74
▲최상일53 ▲최인숭63 ▲최종무72
▲추호경69 ▲한상복70 ▲한운사47
▲홍승오58 ▲홍영백61 ▲홍운경61
▲황명숙56 ▲황인광67

◇美術大學

▲고을한62 ▲김병수87 ▲김수연89
▲김영대75 ▲김원중63 ▲김정헌72
▲김현철86 ▲남경숙54 ▲민경우70
▲박성완82 ▲신승준93 ▲심차순61
▲안문자61 ▲안영훈57 ▲안재후56
▲오경환63 ▲이계안64 ▲이금령80
▲이성희92 ▲이정은94 ▲이주숙74
▲이창형91 ▲임정순76 ▲전진희80
▲정경원75 ▲정상원64 ▲정애란88
▲정연희82 ▲조수호47 ▲채혜선86
▲최정룡67 ▲한정희85 ▲황민자67

◇法科大學

▲가재환63 ▲강상준63 ▲강이수63
▲강종구82 ▲곽동효69 ▲구본성76
▲구연모88 ▲권오승73 ▲권은민86
▲김 환90 ▲김광웅62 ▲김사영80
▲김상태70 ▲김수목87 ▲김영갑78
▲김영선86 ▲김용덕80 ▲김용원75
▲김용한63 ▲김윤범90 ▲김익건90
▲김인재82 ▲김일덕60 ▲김정기79
▲김정무81 ▲김정일87 ▲김중환53
▲김창환61 ▲김천수82 ▲김천우81
▲김태성90 ▲김태훈64 ▲김현석83
▲노용희52 ▲박갑식88 ▲박광호75
▲박정선64 ▲박종연83 ▲박진호87
▲박치영50 ▲박희문77 ▲방용문82
▲신종대82 ▲신진민64 ▲심봉관69
▲심재륜66 ▲안동호49 ▲양명조73
▲양승국81 ▲엄기염62 ▲오문희70
▲오병두72 ▲우영화66 ▲원형일92
▲유기준82 ▲유원규75 ▲유정석70
▲윤경식85 ▲윤태식87 ▲이건리85
▲이경재72 ▲이계영52 ▲이규용78
▲이근관86 ▲이근병83 ▲이근식47
▲이근윤83 ▲이범주66 ▲이상주86
▲이선희88 ▲이성호80 ▲이연진56
▲이영수57 ▲이영원65 ▲이외수67
▲이용창75 ▲이우영94 ▲이원태57
▲이윤재73 ▲이은영73 ▲이재성73
▲이종천66 ▲이준영58 ▲이진황61
▲이철우83 ▲이청환65 ▲이호연64
▲이흥원63 ▲이희석76 ▲임양운75
▲임재연80 ▲장기욱61 ▲장백규82
▲전영회64 ▲전용희85 ▲정근화86
▲정기환65 ▲정남희67 ▲정대훈76
▲정영일77 ▲조영삼85 ▲조재선70
▲조홍은64 ▲지성우70 ▲차지훈87
▲최경준83 ▲최부휴83 ▲최성곤82
▲최종화65 ▲한무근86 ▲한이봉87
▲한창영68 ▲허윤강64 ▲현복수58
▲홍순걸79 ▲홍정희72 ▲황 철66
▲황윤주57

◇師範大學

▲강신호60 ▲강양아89 ▲강창석71
▲강필중90 ▲고미형79 ▲고영호93
▲고종익78 ▲곽근영55 ▲구본황76
▲구자면95 ▲구진희88 ▲구창모80
▲구혜진91 ▲김낙영86 ▲김남형84
▲김덕기61 ▲김명곤76 ▲김성열82
▲김시곤67 ▲김연옥55 ▲김영복68
▲김영자80 ▲김예기58 ▲김옥청43
▲김인옥76 ▲김정숙59 ▲김정아70
▲김정완57 ▲김종경58 ▲김주화69
▲김진호82 ▲김철웅70 ▲김철진75
▲김치경64 ▲김태흥79 ▲김해성85
▲김현중61 ▲김홍기57 ▲김홍기65
▲김희숙72 ▲나영일80 ▲문계동57
▲민무일69 ▲박금옥43 ▲박동근62
▲박동호83 ▲박병기85 ▲박봉상63
▲박상규58 ▲박상대79 ▲박신우84
▲박옥주54 ▲박정현76 ▲박정현76
▲박진태72 ▲박진현60 ▲박형숙89
▲박화엽71 ▲반안국69 ▲배병일62
▲변범식93 ▲변희주74 ▲서갑수60
▲서유정88 ▲서은경80 ▲성기종58
▲성하원57 ▲손성준71 ▲손영국74
▲송복주57 ▲신채식60 ▲신칠성58
▲신흥균64 ▲심용섭61 ▲안하운52
▲양성봉79 ▲양재만80 ▲여병구81
▲염도균65 ▲오성록80 ▲오세량73
▲오태용74 ▲왕세균72 ▲우명미65
▲유광렬56 ▲유예근56 ▲유천근64

▲윤영권㉘ ▲윤천호㉗ ▲윤희옥㊵
▲이계현㉖ ▲이기원㊼ ▲이명균㊼
▲이미숙㊺ ▲이복환㉗ ▲이석보㊼
▲이수찬㊻ ▲이용수㊶ ▲이용재㊸
▲이윤자㊻ ▲이은구㊷ ▲이은호㊽
▲이은희㊻ ▲이정선㉗ ▲이지홍㊻
▲이진주㊿ ▲이찬근㉔ ▲이호준㊹
▲이환기㊺ ▲이희천㉒ ▲임부철㊻
▲임응규㉕ ▲임형진㊺ ▲임희준㊸
▲장경희㉔ ▲장도영㊺ ▲장봉의㉜
▲장성희㊷ ▲정 렬㉖ ▲정귀생㊹
▲정명수㉓ ▲정성욱㊹ ▲정용대㊸
▲제귀연㊹ ▲조계석㊾ ▲조선형㊸
▲조성도㊾ ▲조형우㊹ ▲진위교㊽
▲최경미㊺ ▲최계숙㊻ ▲최광렬㊵
▲최명식㊾ ▲최명옥㉑ ▲최부림㊹
▲최성식㉗ ▲최윤정㊽ ▲최재근㊷
▲최준명㊹ ▲최희선㊺ ▲추병수㊽
▲탁동근㊽ ▲하보원㊼ ▲한중근㊿
▲허 련㊽ ▲현병훈㊻ ▲황긍연㊹
▲황정기㊻ ▲황정례㉖

◇商科大學

▲강내용㊺ ▲경연소㊷ ▲권동수㊽
▲김광태㊽ ▲김수한㊿ ▲김승호㊼
▲김영광㉑ ▲김영기㊾ ▲김영빈㉒
▲김영수㊻ ▲김영신㊶ ▲김옥윤㊹
▲김완수㊷ ▲김정광㊿ ▲김희석㊿
▲남기호㊼ ▲남대우㊹ ▲남영우㉓
▲노태영㊸ ▲문동준㊶ ▲문동준㊶
▲문환일㊽ ▲박대원㊾ ▲박병문㊹
▲박병현㊺ ▲박용선㊻ ▲서동범㊺
▲석풍장㊻ ▲손기창㊷ ▲송무우㊺
▲신연호㉒ ▲안경상㊻ ▲양경환㊷
▲어선선㊼ ▲엄치섭㊽ ▲오홍근㉓
▲유호기㊽ ▲육무수㊼ ▲윤계섭㊽
▲윤용한㊽ ▲이계안㉕ ▲이균재㊽
▲이명인㉓ ▲이문원㉚ ▲이봉식㊺
▲이시하㉚ ▲이안희㊾ ▲이영서㊺
▲이영세㊾ ▲이영호㊾ ▲이우재㊻
▲이원규㊶ ▲이재우㊺ ▲이정보㊻
▲이창수㊸ ▲이철영㊽ ▲이현락㊻
▲전상희㊺ ▲전영덕㉑ ▲전하길㊻
▲정순택㊹ ▲정종찬㉕ ▲정찬우㊹
▲정천봉㊼ ▲정해왕㊾ ▲정현진㉕
▲정환구㊶ ▲최병진㉔ ▲허도행㊾
▲홍동진㊷ ▲황금학㊹ ▲황문환㊽
▲황치홍㊽

◇獸醫科大學

▲강화순㊹ ▲김경환㊹ ▲김기홍㊺
▲김덕수㊸ ▲김두명㊻ ▲김성겸㊾
▲김성기㊿ ▲김수창㊾ ▲김원선㊽
▲김재인㊻ ▲김정배㊾ ▲박병식㊶
▲박봉수㊸ ▲박영춘㊺ ▲박진일㊹
▲오창환㉕ ▲유문상㉒ ▲유보희㊾
▲이경화㉑ ▲이병성㊾ ▲이영득㊼
▲이한길㊺ ▲정영화㊿ ▲채창수㊹
▲최명구㉓ ▲최병조㊿ ▲최창열㊽

◇藥學大學

▲김득구㊷ ▲김재곤㊸ ▲김재옥㊽

"동창회 신용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99년 11월 1일~11월 30일〉

개 인

◇人文大學

▲진영덕㊼ ▲최봉근㊿

◇社會科學大學

▲류연규㊼

◇自然科學大學

▲김명규㊾ ▲배성민㊻ ▲성환경㊺
▲이진환㊺

◇家政大學

▲노은숙㊼

◇工科大學

▲권오철㊻ ▲김종성㊹ ▲김태웅㊸
▲민병진㊻ ▲방윤덕㊾ ▲방창선㊼
▲송동익㊽ ▲이용길㊼ ▲주형태㊺
▲지찬호㊸ ▲천유식㊾ ▲최태섭㊾
▲황상일㊹

◇農科大學

▲권택인㊼ ▲김인수㊺ ▲김정식㊼
▲민병록㊸ ▲어중혁㊸

◇美術大學

▲강형덕㊺

◇法科大學

▲강대형㊷

◇師範大學

▲김지영㊼ ▲박진형㊶ ▲안규희㊻
▲장완배㊻ ▲정동기㊺ ▲최광만㊾
▲최성수㊿

◇商科大學

▲강박전㊾

◇獸醫科大學

▲이도필㊸ ▲이종경㊾

◇藥學大學

▲전용동㊼

◇音樂大學

▲홍명숙㊽

◇大學院

▲선창국㊽ ▲주연배㊻ ▲하승철㊾

◇保健大學院

▲전금자㊹

◇新聞大學院

▲임채욱㊿

◇行政大學院

▲황두영㊾

◇최고경영자과정

▲김건종㊽ ▲천광찬㉘

◇최고산업전략과정

▲이동훈㉚

▲김진아㊶ ▲도상복㊺ ▲박노상㊷
▲박동철㊷ ▲박병국㊸ ▲박종우㊻
▲서병기㊻ ▲서성수㊼ ▲손경석㊾
▲손동하㊾ ▲송진흥㊻ ▲신현종㊹
▲엄주오㊼ ▲우숙희㊹ ▲유한호㊹
▲이경수㊿ ▲이광식㊿ ▲이명순㊽
▲이병선㊾ ▲이연희㊶ ▲이오직㊹
▲이용균㊺ ▲이태욱㊼ ▲정연진㊽
▲최연길㊸ ▲최진석㊻ ▲편승범㊺
▲한덕환㊿ ▲홍순철㊹

◇音樂大學

▲강신자㊿ ▲강현주㊸ ▲김미경㊺
▲김병엽㊸ ▲김수혜㊻ ▲김영경㊻
▲김윤경㊻ ▲김인혜㊹ ▲김장원㊾
▲김준희㊹ ▲노희영㊽ ▲민의식㊻
▲박근정㊼ ▲박석철㊸ ▲박선하㊽
▲박승민㊻ ▲박은성㊾ ▲박은희㊸
▲박효경㊾ ▲배경희㊾ ▲백낙호㊷
▲서은령㊽ ▲설용애㉑ ▲성심온㉕
▲송안나㊽ ▲송태균㊺ ▲신혜진㊻
▲안현정㊼ ▲염보영㊻ ▲우광제㊽
▲우송실㊻ ▲윤소영㊽ ▲윤혜원㊿
▲윤혜원㊺ ▲이 영㊼ ▲이명숙㊸
▲이보나㊼ ▲이상화㊽ ▲이연주㊼
▲이영수㉕ ▲이영주㊺ ▲이용애㉑
▲임미수라㊾ ▲장기웅㊽ ▲전혜옥㊾
▲정기진㊻ ▲정미향㊺ ▲정은희㊶
▲정진원㊻ ▲정혜용㊻ ▲정화자㊹
▲조성미㊽ ▲최성희㊽ ▲최인배㊼
▲한형실㊶ ▲함천혜㊻ ▲황광섭㉑
▲황순빈㊾ ▲황윤희㊸ ▲황현정㊼
▲황희영㊻

◇醫科大學

▲강성섭㊻ ▲강지숙㊿ ▲고재경㊿
▲구본술㊿ ▲구자일㊺ ▲권녕현㊶
▲권용준㊸ ▲김경래㊿ ▲김교명㊼
▲김대성㊿ ▲김동희㊻ ▲김수웅㊽
▲김순배㊽ ▲김승육㊽ ▲김용민㊽
▲김윤수㊹ ▲김정구㊻ ▲김정용㊻
▲김춘길㊹ ▲김효수㊽ ▲김희섭㊸
▲남송현㊽ ▲류백렬㊽ ▲문대혁㊷
▲박성관㊷ ▲박윤근㊶ ▲박정구㉕
▲박제경㊾ ▲변종선㊼ ▲서흥석㊸
▲석정우㊷ ▲송원석㊺ ▲신규태㊼
▲신상철㊸ ▲신영태㊸ ▲안규중㊽
▲안형재㊽ ▲왕규창㊾ ▲우성일㊸
▲우홍균㊿ ▲유세화㉑ ▲이경훈㊿
▲이광진㊽ ▲이도희㊽ ▲이동련㊼
▲이동철㊽ ▲이언복㊽ ▲이윤우㉕
▲이재순㊻ ▲이종구㊷ ▲이종철㊸
▲이철호㊾ ▲이해욱㊶ ▲이현동㊸
▲이현주㊾ ▲임용철㊷ ▲전상입㊾
▲조병제㊻ ▲채인호㊽ ▲최기용㊶
▲최동철㊽ ▲최윤호㊼ ▲최희석㊸
▲황정득㉕

◇齒科大學

▲강우태㊻ ▲권기홍㊽ ▲권순배㊽
▲권현실㊶ ▲김경돈㊶ ▲김명동㊼
▲김언형㊽ ▲김영수㊶ ▲김오석㊻
▲김우종㉑ ▲김원범㊺ ▲김재형㊼
▲김축준㊷ ▲김현진㊿ ▲문성철㊿
▲박동욱㊸ ▲박병덕㊻ ▲박연수㊹
▲박원기㊾ ▲박정동㉕ ▲백홍길㊷
▲사명희㊾ ▲서병무㊽ ▲석광덕㉕
▲신용진㊽ ▲심광섭㉚ ▲양재영㊻
▲양희택㉕ ▲오성진㊼ ▲원도종㊾
▲윤대영㊶ ▲윤종숙㊷ ▲이강주㊼
▲이만선㉒ ▲이만희㊾ ▲이상봉㊺
▲이상신㊻ ▲이장호㊶ ▲이종훈㊶
▲이주봉㊾ ▲이철용㊼ ▲이청룡㊼
▲정철표㊶ ▲조경헌㊽ ▲최명진㊶
▲최상윤㊻ ▲최종호㉔ ▲최창혁㊼

◇大學院

▲권효숙㊹ ▲김경민㊺ ▲김기중㊻
▲김문철㊻ ▲김성간㊻ ▲김성집㊸
▲김재훈㊷ ▲김창남㊸ ▲박남건㊻
▲박창수㊶ ▲성진근㉑ ▲손충기㊾
▲신범석㊺ ▲안호영㊿ ▲유영백㊽
▲유정준㊺ ▲유한성㊻ ▲이성모㊽
▲이종우㊼ ▲정문기㊸ ▲정형재㊼
▲정홍진㊽ ▲주흥재㊸ ▲최석문㊺
▲최석원㊼ ▲최종운㊻

◇經營大學院

▲김조경㉔ ▲박경원㊻ ▲박명진㊼
▲박재범㊹ ▲송윤정㊻ ▲심민경㊺
▲안병태㉓ ▲안응희㊶ ▲이강부㉓
▲이병수㊺ ▲이재훈㊻ ▲이주성㊾
▲정남진㊻ ▲정영민㊿ ▲정준연㊶

◇敎育大學院

▲김정휘㉓ ▲류숙희㊼ ▲심수정㉑
▲오경종㉑

◇保健大學院

▲곽상빈㉑ ▲김순덕㊸ ▲이경연㉓
▲임완호㊸ ▲정문희㊺ ▲정희곤㊽
▲조원정㉚ ▲홍숙현㊺

◇新聞大學院

▲김우룡㉓ ▲서기원㉚ ▲정영애㉓

◇行政大學院

▲권오상㊷ ▲김광영㊶ ▲김세호㊺
▲김용길㊽ ▲박재원㉑ ▲박정훈㊶
▲양인모㉓ ▲오동호㊽ ▲유강하㊽
▲조상호㊼ ▲채희성㉑

◇環境大學院

▲구길본㊽ ▲김동일㊷ ▲김재윤㊺
▲김현석㊸ ▲임승달㊼ ▲정영선㊺
▲최재호㊶ ▲한효덕㊸ ▲홍완기㊶
▲황길연㊼

◇최고경영자과정

▲강성효㉝ ▲강창구㊻ ▲강혜숙㊼
▲고충남㊲ ▲곽중익㊼ ▲권용진㊱
▲권혁진㊼ ▲김계자㊵ ▲김광호㊻
▲김근무㊵ ▲김동원㉝ ▲김부중㊷
▲김성섭㊼ ▲김성호④ ▲김성환㉕
▲김수곤⑳ ▲김영근㊼ ▲김을태⑲
▲김현수㉔ ▲김홍기㊺ ▲남상철㊼
▲도일규㊼ ▲문창규㊸ ▲박건작㊼
▲박용훈㉞ ▲박재원㊼ ▲박준형②
▲박철순㊼ ▲박학경㊼ ▲백중헌㊺
▲서만규㊼ ▲성환옥⑱ ▲신승훈㊼
▲신춘식⑰ ▲안갑원㉞ ▲오기식㊻
▲오인택㊷ ▲윤태하㉞ ▲이건영⑱
▲이궁훈㊼ ▲이균범⑯ ▲이병대㊼
▲이봉우㊻ ▲이수종⑭ ▲이승준㊻
▲이영순㊺ ▲이원표㊼ ▲이은수⑮
▲이은택㊷ ▲이태교④ ▲이한우㉛
▲장호균⑯ ▲전정측㊼ ▲정광훈㊼
▲정구용㊼ ▲정덕용㉑ ▲정문호㊼
▲정영무㊼ ▲정태봉㉑ ▲정필모②
▲정형택⑥ ▲조진경㊻ ▲조희욱㊼
▲주영복⑭ ▲최병면㊶ ▲최성종㊼
▲최세창⑦ ▲최수환⑪ ▲최정헌⑤
▲최종식㊼ ▲하창식㊻ ▲한형수㊼
▲홍광철⑥ ▲홍두식㊼

◇최고산업전략과정

▲김관수⑨ ▲김기만⑬ ▲김인수⑩
▲박광전⑭ ▲박노관① ▲박몽식⑯
▲박무영⑦ ▲신중규② ▲유석현⑪
▲이건창⑤ ▲이복근⑫ ▲이은택⑥
▲이찬경⑮ ▲이청승⑨ ▲이태화⑯
▲이호웅④ ▲전영웅⑧ ▲전재홍⑰
▲정도현⑦ ▲정도현⑦ ▲조한남⑭
▲최용복⑯ ▲황능웅⑪

◇국가정책과정

▲강희간㊹ ▲권승욱㊻ ▲김경수④
▲김덕창㊴ ▲김동주㉘ ▲김종흡㊵
▲김찬회① ▲김홍근⑪ ▲남 철⑩
▲남상준㊺ ▲박선만㉕ ▲박인복㊼
▲박준구㊼ ▲반승일㊸ ▲방동식㉗
▲서용선㊺ ▲성경순㉙ ▲성낙중㊼
▲소병일㊼ ▲엄태항㊼ ▲오영우㉕
▲유병봉① ▲이규식㊹ ▲이규정⑬
▲이달화㉔ ▲이맹우㊼ ▲이수종⑬
▲이수천㉘ ▲이의재⑯ ▲이종천㊵
▲전재욱㉔ ▲정규찬㉟ ▲조부영⑫
▲최장용㊷

◇고급금융과정

▲강신학⑪ ▲김영복⑤ ▲김정일⑥
▲김종갑⑦ ▲김철근① ▲박건식⑫
▲이창호⑩ ▲장지인⑩ ▲조현석⑪
▲최성기① ▲홍재문⑩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김행자② ▲남궁완④ ▲박창수⑤
▲송기주③ ▲유병호⑤ ▲윤현기⑤
▲이경호② ▲이응진② ▲조재승③
▲최길영② ▲허 식④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김수길① ▲윤주선④ ▲이익진②
▲이종웅④

지부 분담금

◇오스트리아지부 : 555,720원

◇천진지부 : 555,720원

◇농수산물유통공사

▲김광진 ▲김평겸 ▲김희국
▲류희숙 ▲박감춘 ▲정일만

◇중외제약

▲구본암 ▲권희안 ▲김병진
▲김선미 ▲김수영 ▲김숙현
▲김영미 ▲김종민 ▲김지배
▲김학엽 ▲남웅현 ▲배지록
▲서동철 ▲서형식 ▲양지영
▲오달균 ▲오세웅 ▲윤동기
▲이기호 ▲이윤임 ▲이주원
▲조소연 ▲조재천 ▲최상호
▲최승호 ▲최영길 ▲최중부
▲최학배 ▲최현식 ▲함은경
▲홍성선

◇춘천교대

▲강태완 ▲권덕원 ▲김광명
▲김남일 ▲김상욱 ▲김왕근
▲김정휘 ▲김흥수 ▲나병소
▲노경주 ▲박민수 ▲박준수
▲배성제 ▲백정자 ▲성의용
▲송환용 ▲심우엽 ▲이길종
▲이대형 ▲이도형 ▲이면우
▲이성영 ▲이영문 ▲이완섭
▲이재봉 ▲이형준 ▲이환기
▲장병기 ▲장성모 ▲전홍열
▲조동섭 ▲추병완 ▲한진구

월 계 : 57,051,440
누 계 : 569,480,254